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03호

Friday, September 20, 2024 A

48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워싱턴 주택시장 반등 계기될까

모기지 이자율 하락세 지속
“5%대 가능성까지 제기돼”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매매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고 있다.

팬데믹 이후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이자율이 8%에 육박하다가 최근 6.09%까지 떨어진 가운데, 시장 반응은 대체로 5%대 이자율 시대로 접근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대 이자율은 팬데믹 이전 1-2%대 이자율에 비해서는 훨씬 높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자율로 여긴다. 테니 볼스턴 코어로직 연구원은 “이것은 과학이나 경제학이 아니라 사실상 심리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을 중요시하는 경제학자들은 기준금리 인하나 직접적으로 모기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지만, 연방재무부 채권금리 인하를 거쳐 모기지 금리 하방 경직 성향으로 나타날 경우 이자율 하락에 따른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했다.

로렌스 윤 전미부동산중개연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이후 모기지 이자율 정점 대비 현재 1% 정도 하락했는데,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 2천달

러를 예상할 경우 30년 동안 5만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을 3-6개월 이후 선계약할 경우 5% 미만 상폭도 등장하는 등, 모기지 이자율 하락세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은 더 낮은 이자율에 베풀고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모기지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모기지는헐가협회(MBA)에 지난주 신규 모기지 신청건수는 14.2%, 재용자 신청은 24% 증가했다. 버지니아 애쉬번에서 용자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만타 투나도르는 “요즘 용자문의와 신청이 쇠도하면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은 2025년말까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1.5%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기지 이자율이 5%대보다 낮은 4%대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수요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이미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훨씬 빨라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모기지 이자율 하락이 시장 참여자 증가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더욱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부동산업체 레드핀의 데릴 페어웨더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이미 3차 함수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면

서 “복수의 비딩 경쟁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할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택재고 부족으로 기존 주택을 매매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셀러의 수요도 높은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망설였으나 그 고삐가 풀리면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주택이 리스팅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압박을 제어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가격 상승과 하락 예측은 기존 셀러들이 보유한 주택의 모기지 이자율과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때 직면하는 모기지 이자율 차이에 있다. 현재 주택 소유주의 20%는 3% 미만, 60%는 4% 미만의 모기지 이자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정이 아니더라도 최근 2년 사이 6%가 넘는 이자율로 주택을 구매한 이들의 재용자 수요만으로도 주택시장은 충분한 활력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미국 여권 온라인 갱신 가능해진다

앞으로 미국 여권을 온라인을 통해 갱신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는 최근까지 임시 프로그램으로 해왔던 온라인 여권 갱신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레나 비터 국무부 부장관은 “올해만 500만 명이 온라인 갱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세부 사항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의 여권 소지자들은 향후 서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체크를 보내거나 인터뷰 예약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진다. 동시에 지난 5년 동안 만료

국무부 프로그램 전면 확대
미국 내 주소지 거주자 대상



됐거나 내년엔 만료될 예정인 여권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단, 미국 내 거주 주소가 있을 경우에만 온라인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이 필요한 시민들은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기존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된다.

기존에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야 했던 규정도 없어졌다. 국무부가 규정한 여권 사진 규격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전화기를 이용해 찍은 사진도 바로 업로드할 수 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국무부는 온라인 갱신에 6~8주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발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만 총 2400만 건이 처리됐다. 최인성 기자



빨간 모자에 사인하는 트럼프 버지니아 주의 대통령 선거 현장 사전투표가 오늘(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 뉴욕 유니언데일에서 유세 도중 한 바에 둘러 빨간 모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예기 물받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pital Healthcare Institute
치료마사지 자격증 코스
버지니아한의대 (VUIM.edu) 부속학교
높은 수입 잠재력 전문직! / 자격증 프로그램 수료증 소지!
자영업 / 전문기관에서 풀타임 / 파트타임근무.

- 최첨단 기술: 개발도입 힐링 치료마사지 기계 50% 이상 치료 마사지 도움 향상
- 최첨단 기계: 손마사지로 할 수 없는 마사. 뜸, 부항, 온열 (전침) 역할.

- 수업 600 시간 필수
- 월요일 부터 목요일 저녁 온라인 수업
- 토요일/일요일 선택 임상실습
- 매달 15일 새학생 등록 가능

학비: 한정기간동안 특별 할인가 \$5,000 (정가 \$8,000) 할부결제 가능

치료마사지/체혈사 자격증 코스
문의: 571-243-4251

Capital Healthcare Institute
체혈사 자격증 코스
전문 의료자격증 취득

80시간 과정
안정적 수입 & 취업
국가인증 시험 합격률 100%

수업: 온라인 + 실습
학비: \$2,000

치료마사지/체혈사 자격증 코스
문의: 571-243-4251

학교주소: 1980 Gallows Rd, Vienna, VA 22182

통일 외치던 임종석 “2개 국가 수용”

여당 “북 보조 맞추나”



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언젠가는 준비해야 할 문 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 제기한다” 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 장을 지낸 임종석(사진) 전 실장이 19일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 하지 마시다”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 맡기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놓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날 발언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에선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자 이에 보 조를 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 두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미국 행위”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일질 말 한마디 없이 사실을 은폐 조작했던 지난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에만 유독 동의를 보이는 행태는 임종석 전 실 장의 국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김정은의 ‘2국가론’에 대해선 “기존의 대남 노선 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한 다”면서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같은 비군사적 충돌이 시작됐다. 한 걸음만 깨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 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대화가 재개 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우리 입장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려면 한·미 간 더 긴밀한 협상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강보현 기자

한·미관계 뒤흔든 '코리아게이트' 주역 로비스트 박동선씨 별세



1970년대 중반 워싱턴 정가에 파란을 일으킨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인 박동선(89)씨가 19일 별세했다. [연합뉴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한·미 외교 관계를 경색케 한 대형 로비스캔들 '코리아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동선(89) 씨가 19일 별세했다. 박씨는 지병을 앓던 중 상태가 악화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아 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로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박동선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정부 지시에 따라 연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매수 공작을 벌였다’고 알렸다. 박씨가 로비스트로 활약하면서 거액의 로비를 벌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1935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산 쌀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한 그는 1960년대 워싱턴 시내에서 고급 사교장을 운영하면서 미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박씨는 1978년 미 사법당국 수사를 받았고 미국 측으로부터 면

을 받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로 인해 한·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미국 검찰은 그를 기소했으나 기각돼 박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박씨는 이후 일본·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에는 유엔의 ‘이라크 식량을 위한 석유(oil-for-food)’ 프로그램 채택을 위해 이라크로부터 최소 200만 달러를 받고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됐다. 2007년 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아 2008년 9월 석방됐다.

석방 후 귀국한 박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좀처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2009년 11월 ‘역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공개 강연을 했다. 당시 박씨는 “나는 로비스트와 거리가 멀다”라며 “그 누구의 임명도 없이 스스로 민간외교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의 중문 번역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 나은재 기자

이재명 “주식 팔아야 하냐고 묻는 노인들에게 ‘안 사는 게 좋다’ 고 답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19일 추석 민심을 전했다.

그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오지의 노인들이 ‘우리 주식 팔아야 돼?’ 이런 걱정을 물어와서 솔직히 이야기해 드렸다”며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석 때 사람들을 만나니) 주식 걱정을 하는 분도 꽤 있더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늘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오늘 때 떨어오르다 보니 다른 나라는 지수가 몇 배씩 오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암울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 경제 주체에 의욕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시장’이 알아서 한다, 우리 모른다’는 태도를 취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몇 백 만원씩 전 재산을 털어 몇 천 만원 주식을 사오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즉 자회사를 만들어 알맹이를 속 빼먹으니 겁테기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이러 “일반적 주식을 사놓으면 전망이 안 좋으니 주가는 떨어지고 거기에 하필이면 주식 주가 조작하는 세력이 횡행해서 누구는 돈 벌었다는데 사고 나면 폭락해서 완전히 물려서 강릉차는 시장이니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거기에 최근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는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며 “어떤 주민들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①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워싱턴 날씨 (°F)		
21일(토)	82~66	☀️
22일(일)	74~62	☁️
23일(월)	71~62	☁️
25일(화)	73~63	☁️
26일(수)	75~65	☁️
27일(목)	76~63	☁️

9월 20일(금) 84~65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잔액 없음/보통 하향 리모
SOLD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Level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 unit	\$ 195	\$ 150	\$ 90	\$ 45
2 units	\$ 365	\$ 290	\$ 180	\$ 90
3 units	\$ 485	\$ 430	\$ 270	\$ 135
의료비 지원범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예방 검진	입원, 수술, 응급실 검사, 치료	입원, 수술	입원, 수술
본인 부담금	\$500/년	\$500/건	\$1,000/건	\$5,000/건

* 모든 Level에서 질병당 \$150,000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나눔 사역

Since 1996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는 CA와 NJ 지역의 CMM 회원은 **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773-777-8889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CMM기독교의료상조회는 로고스선교회 산하 기관으로 501(c)(3)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이며,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유사 단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



“열방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19회 한미국가조찬기도회
10월 12일 오전 7시
MD 벨엘교회에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 초교파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한미국가조찬기도회(회장 정승욱, 이사장 서옥자)가 내달 12일(토) 오전 7시,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주제로 메릴랜드 엘리콧티 소재 벨엘교회(담임 백신중 목사)에서 열린다.

기도회 홍보를 위해 임원진들과 함께 19일 본보를 방문한 정승욱 회장은 “한미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 교회 중심으로 구축된 한인 커뮤니티가, 지역사회를 넘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연결하고, 한미동맹을 잇는 민간외교의 축을 맡게 되길 바란다”면서 “아침 일찍 모여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서옥자 이사장은 “전쟁으로 얼룩진 전세계 평화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기도해야 할 시기”라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한인사회가 미 단체와 연계해 진행하는 이번 기도회에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의 주연설자는 모스 단(Morse Tan·사진) 전 국제범죄 전문특



(왼쪽 시계방향으로) 김영선, 정세권, 김진이, 최정선 임원과 서옥자 이사장, 정승욱 회장

명대사가 맡는다. 단 대사는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과 연방상원의회 청문회 인준을 거쳐 임명된 국제범죄 전문 특임대사로, 아시아인-아메리칸으로 는 최초 기록을 지니고 있다.

단 대사는 르완다, 코소보, 수단, 시리아, 버마, 중국, 이라크, 과테말라, 스리랑카, 북한 등 주로 분쟁지역과 미국의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평화유지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위튼 칼리지와 노스웨스턴대학 로스쿨을 거쳐 노스일리노이 대학 법대 최연소 교수 타이틀을 지니고 있으며 텍사스대학 법대 객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단 대사는 특히 한국의 미션스쿨인 한동대학 로스쿨을 만든 장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동대학 로스쿨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 법대 JD 인준 프로그램을 도입해 다수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했다. 그는 시카고 코리안-아메리칸 소사이어티에서 일하는 등 한미관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한편 단 대사는 ‘북한과 국제법, 그리고 이종의 위협’이라는 책을 저술하는 등 다수의 미북관계 관련 서적과 논문을 저술한 바 있다. 그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 한국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기도회 측은 장거리 운행이 힘든 버지니아 한인들을 위해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703-844-0355 김윤미 기자



한인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에 8.7년

전체 평균보다 1.7년 더 소요

한인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약 8.7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을 포함한 전체 평균은 약 7년으로 조사됐다.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자의 날’을 맞아 귀화식 일정 등을 발표하고, “최근 시민권 신청 적체를 60% 줄였으며, 시민권 처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올해 4~6월 세 달간 접수된 시민권 신청건수는 총 24만526건으로, 그중 21만9689건(91.3%)이 이미 시민권 승인을 받았다. 시민권 시험에 한번에 합격하는 비율은 약 89.5%다.

USCIS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 후 가장 빨리 시민권



을 신청하는 국적은 나이지리아(5.6년)로 집계됐다. 이어 파키스탄(5.9년), 브라질(5.9년), 인도(5.9년) 등 출신이 시민권을 빠르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인들은 영주권자로서 약 8.7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시민권을 신청했다.

시민권 승인을 가장 많이 받은 국적자들은 멕시코 출신으로 11만 1500명이었다. 이어 인도(5만 9100명), 필리핀(4만 4800명), 도미니카공화국(3만 52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8월 기존주택 거래량 열달만에 최저

집값은 전년 대비 3.1% ↑

8월 들어 주택거래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중개업협회(NAR)는 8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86만건(계절조정 연이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2% 줄었다.

8월 매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 2월 438만건을 기록한 이후 잇따라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존주택 거래량은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상 거래 종결까지 통상 1~2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 통계는 6~7월경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6~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30년 만기 고정금리 기준)가 7% 안팎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게 주택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9월 중순 현재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대 초반으로 낮은 상태다. 8월 말 기준 미국의 기존주택 재고량은 135만 가구로 전월 대비 0.7%, 작년 7월 대비 22.7% 각각 증가했다.

재고 증가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매물 가뭄을 해소하기엔 아직 충분치 않다 보니 주택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졌다. 8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1만 6천 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8월 가격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NAR의 로런스 윤 이코노미스트는 “8월 주택거래량은 실망스러웠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재고량 증가와 맞물려 향후 몇 달간 간 거래량 증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재고 증가는 주택 구매자들이 적절한 집을 선호하는 가격에 사는 데 좀 더 나아진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미 북동부 등 주택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인 지역은 여전히 매도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복수 노조와 고용계약

카운티 정부 역사상 최초
하수종말처리장 레노베이션 공사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가 카운티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젝트 노동계약(PLA)을 맺었다.

PLA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맺는 고용 전 공동 협상계약으로, 특히 개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고용약관 등에 자주 활용되는 노동 계약의 일종이다. 카운티 정부는 어코딩크 하수종말처리장(9201 Richmond Highway) 레노베이션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과 PLA

를 맺어 공사 완결성과 효율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PLA 계약을 허용했으며, 2021년 5월부터 새 법률이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카운티 정부는 모두 7100만달러를 투입해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부터 용역업체를 물색해왔다.

어코딩크 하수종말처리장은 페어팩스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티 등 모두 63스퀘어피트 면적의 하수 및 생활

오폐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지난 40여년 동안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낳아왔다. 특히 시설 노후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에 시달려왔다.

PLA 고용 계약은 카운티 정부와 노동조합을 긴 하청용역회사와의 제3자 계약으로 하청용역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용조건 등의 감독권을 카운티 정부가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용역사업 참가 기업은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노스이스트 렘스코 등이며, 볼티모어-워싱턴DC 건설노조연합회와 제3자 계약을 맺었다.

박세용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퓌트뉴스, 리치몬드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7-10/13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기내서 이것 먹지 마세요” 승무원만 아는 ‘더러운 비밀’

비행기 물탱크 물로 커피·차 내려

항공사의 조종사가 기내 섭취에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하며 ‘더러운 비밀’이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델타 항공의 조종사이자 부기장으로 근무 중인 폴 야노비츠는 비행기에서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술, 커피, 탄산음료, 매운 음식, 튀긴 음식 등 5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런 아침 비행에는 좋을지 몰라도,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도 이미 탈수 상태인 기내 환경에서 (더 심각한) 탈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식품 안전 전문가와 승무원들



은 모두 커피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노비츠는 “비행기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차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탱크 물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NBC는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커피나 차에 사용하는 물이 비행기의 물탱크에 연결된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승무원은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비행기의 물탱크는 평소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승무원에게 물어보라. 우리는 커피나 차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수영 기자**

“패션 노바’가 디자인 도용” 한인 업체 7000만불 소송

〈주류 패션 브랜드〉

바이브먼트사 진 박 대표 제기 “스타일 번호까지 도용해 판매”

한인 청바지 전문 제조사가 유명 의류 판매 업체인 ‘패션 노바’를 상대로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션 노바는 수년 전부터 인스타그램 열풍을 타고 급부상한 업체다.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서는 온라인 패션 빅브랜드로 다수의 한인 의류업체들도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 판사 그레고리 키오시인)에 따르면 바이브먼트 M.I.U(이하 바이브먼트)사는 패션 노바가 자사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모조 청바지를 제작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해 11월 27일에 법원에 접수했다.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

청했고 ▶불공정 경쟁 ▶계약 관계에 대한 의도적 방해 ▶불법 행위 등을 주장하며 704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또, 원고 측은 패션 노바사가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제작한 모조 청바지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패션 노바 측은 바이브먼트사가 제조한 특정 청바지 모델의 스타일 번호까지 도용해 모조품을 만들었고 이를 판매해 왔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패션 노바는 검색엔진최적화(SEO) 기술을 통해 바이브먼트의 명성을 악용하고, 정품 청바지를 전략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브먼트사와 패션 노바는 약 10년간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박 대표는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패션 노바는) 우리가 만든 청바지

의 스타일 번호뿐만 아니라 디자인, 원단까지 똑같은 것을 사용했다”며 “이를 중국 등에서 싸게 제작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해왔다”고 말했다.

패션 노바는 그동안 디자인 도용 문제 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려왔다. 유명 스포츠 제품 기업인 아디다스로부터 스탠스미스 신발과 관련한 디자인 도용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부정적인 소비자 리뷰를 막은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4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플레이보이와 토끼 마크를 두고 상표권 분쟁, 배송 계약 위반으로 650만 달러 배상금 지급, LA하청 업체 임금 착취 논란 등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정영지 기자**

트레이더 조백 재출시...매장 앞 장사진

매장들 대기 줄 500ft 넘어 온라인서 500불 넘게 거래

풍귀현상이 일고 있는 가방이 있다. 샤넬이나 구찌 같은 명품백이 아니다. 바로 식료품 마트에서 판매하는 2.99달러 짜리 가방이다.

18일 대형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가 미니 캔버스 토트백을 재출시했다. 지난 3월 처음 출시됐을 당시, 일주일 만에 완판을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소비자들을 다시 찾아왔다.

토트백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이날 페어팩스 애비뉴 인근 트레이더 조 앞에는 매장 오픈 전부터 가방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대기 줄이 500ft는 훌쩍 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줄을 선 사람 대부분이 한인이었다. 젊은 층은 물론, 시니어까지 대기 줄에 합류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토

트백을 사기 위해 기다렸다. 이날 줄 가장 앞에 있던 한인 부부는 매장 오픈 2시간 전인 오전 7시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오전 9시, 매장이 열리자 대기 줄에 있던 사람들이 곧바로 토트백 진열대로 직진했다. 사람들이 3~4개씩 가져가려고 하자 직원들이 1인당 구매 가능 개수가 2개라고 알렸다. 사재기 방지 차원에서다.

트레이더 조 토트백은 첫 판매 당시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바이럴을 통해 빠르게 큰 인기를 얻었다. 토트백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탓에 중고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기도 했다.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2.99달러짜리 가방이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었다. **김경준 기자**



18일 오전 9시 30분경 LA한인타운 인근 3가와 페어팩스 애비뉴 코너의 트레이더 조 매장 앞에서 손님들이 토트백을 사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인은행 추석 송금 건수·금액 모두 감소

올해 한인은행들의 추석 무료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한국 등 해외로의 송금 규모와 건수 모두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우리아메리카, 신한아메리카 등 한인은행 8곳의 추석 무료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추석 전후로 총 6260건에 걸쳐 1614만779달러의 송금이 이뤄졌다. (표 참조)

건당 평균 송금액을 계산했을 때는 올해 건당 2578달러가 송금됐다. 작년의 2519달러보다 2.3% 올라간 수치다.

올해 은행들의 추석 무료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한인들의 총 송금 건수는 지난해 8223건에서 6260건으로 1963건 적었다. US메트로뱅크를 제외한 7개 은행에서 송금 건수는 모두 줄어 들었다. 감소 폭은 12%에서 54%까지였다. 송금액 규모 또한 지난해 2071만 4989달러에서 1614만779달러로 457만 4210달러 감소했다. 6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한 오픈뱅크를 제외한 모든 은행이 감소를 보였다. 다만 뱅크오브호프 측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한 현지화단위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번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하면 송금액 규모가 예년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한인은행 추석 송금

은행	송금 건수(건)			송금액(\$)		
	2024년	2023년	증감(%)	2024년	2023년	증감(%)
뱅크오브호프	2,203	2,814	-21.7	6,317,181	7,522,552	-16.0
한미은행	1,439	1,789	-19.6	4,543,853	5,823,123	-22.0
PCB뱅크	200	258	-22.5	514,940	592,977	-13.2
오픈뱅크	99	145	-31.7	628,071	391,030	60.6
CBB뱅크	102	116	-12.1	397,064	1,337,191	-70.3
US메트로뱅크	75	71	5.6	138,200	248,105	-44.3
우리아메리카	1,811	2,301	-21.3	2,424,538	3,164,310	-23.4
신한아메리카	331	729	-54.6	1,176,932	1,635,701	-28.0
합계	6,260	8,223	-23.9	16,140,779	20,714,989	-22.1

자료: 각은행

Hollywood Casino에는 Fortune Pai Gow 포커, 3 카드 및 4 카드 포커, High Card Flush 등 프로그레시브가 특징적인 가장 인기 있는 테이블 게임이 모두 있습니다!

HOLLYWOOD CASINO에서 모든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9 DRAGONS

정통 중국 요리

9 Dragons의 이국적이고 정통적인 아시아 풍미를 경험해 보세요. 아시아 스타일의 최고급 요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즐겨보세요. 칠리 소금을 곁들인 점프 쉬림프, 칠리와 타이 바질을 곁들인 치킨, 태평양 연안 최고의 국수 등이 인기 있는 중국 레스토랑을 만나보세요. 눈앞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는 넓은 스시 바를 즐겨보세요.

9 DRAGONS 드래곤으로 극동 지역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해 보세요!

AT CHARLES TOWN RACES
A PENN Play Destination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박 문제가 있으세요?
1-800-GAMBLER로 전화하거나
www.1800gambler.net을 방문하세요.

고물가에 소득 늘어도 저축은 되레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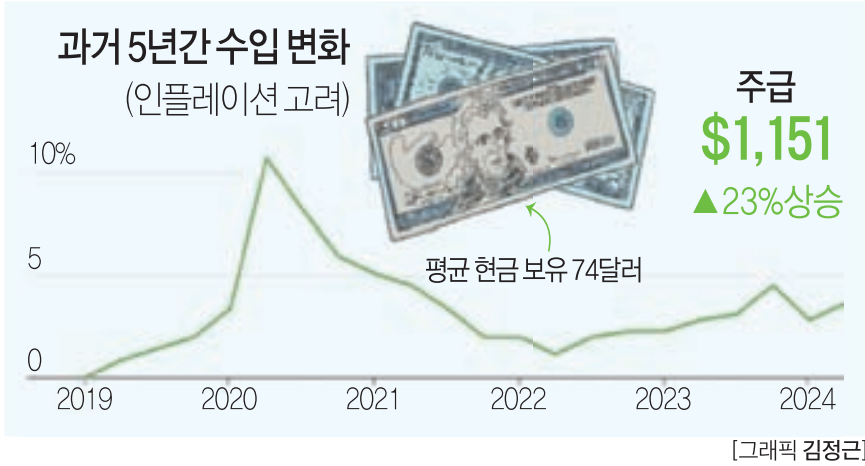
저축률 5년 전 절반 수준 2.9%
카드 부채 1조1400억불 최고치
모기지 비용 5년 새 25% 증가

팬데믹을 거치는 지난 5년간,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은 늘어났지만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저축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갑에 들어있는 물건을 예로 들어 소비자들의 평균적인 경제 상황이 지난 5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도했다. 현금, 데빗카드, 크레딧카드, 운전면허증, 등의 물건들은 각각 소비자들이 지출항목과 수입항목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현금**: 점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지갑에 있는 현금은 60달러에서 74달러로 늘어 눈길을 끈다. 이렇게 지갑이 조금이나마 두둑해진 이유는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평균 연 수입은 2019년에 비해 23% 증가했다. 특히 팬데믹이 한창인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10% 이상 상승하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했던 다양한 재난지원금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하위 25% 저소득층이 수입이 가장 가파르



게 늘어났다. 애플리케이션 연방준비은행의 통계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데빗카드**: 데빗카드는 은행 계좌를 의미한다. 소비자들의 은행계좌잔고는 5년 전보다 14%가 늘어서 3091달러였다. 수입이 늘어난 비율만큼 계좌잔고가 늘지 않았다는 건 저축을 덜 한다는 의미다. 2024년 7월 기준 저축률은 2.9%인데 이는 2019년 말의 수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입이 늘었음에도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크레딧카드**: 크레딧카드 부채는 2019년 5834달러에서 2024년 6218달러로 6% 상승했다. 크레딧카드 부채 이자율이 2019년 17%에서 2024년 23%로 훌쩍 뛰어서 크레딧카드 부채가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올 2분기 크레딧카드 연체 규모는 사상 최대인 1조14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운전면허증**: 차량 유지비도 크게 올랐다. 평균 자동차 할부금은 2019년보다 28%가 오른 737달러였다. 오토론 이자율이 5.4%에서 7.1%로 오르니 할부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자동차 보험료와 수리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7월 기준 연간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1715달러로 이는 2019년보다 50% 가까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평균 주택보험료 또한 2019년 1164달러였던 것이 2024년에는 1765달러로 오르는 등 전반적인 주택 소유 부담도 뚜렷하게 커졌다. **조원희 기자**

사설



한인들도 금리인하 혜택 누리야

연방준비제도(Fed)가 18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인하폭도 '빅컷'을 의미하는 0.5%포인트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낮아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4년 반만의 일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가고 있고, 일자리 증가세도 둔화했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인하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연준은 "최근 각종 지표는 경제가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연준은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그동안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2022년 3월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 1년

여 만에 22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렸다. 연준의 굳건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는 거뒀지만 소비자와 기업들의 금리 부담도 통도 컸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금리 인하 발표는 고금리 기조에 마침표를 찍었음을 알린 것이다. 따라서 관심은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어떤 속도로 내릴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별써 연내 0.5%포인트의 추가 인하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아울러 내년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3.4%로 전망하기도 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각종 소비자 금리 하락, 환율 등 경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 한인 경제권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보려면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내 비즈니스나 가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금리 하락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블랙록·MS 등 300억불 인프라 펀드 조성

최종 목표는 10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AI)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선다. AI 기술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경쟁은 빅테크 사이에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MS, 블랙록,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설립한 기술회사 MGX는 '글로벌 AI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GAIIIP)'을 출범시켜 3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펀드 규모는 향후 추가 투자자 모집과 부채 금융(debt financing) 등을 활용해 최대 1000억 달러까지 키울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00억 달러 규모로 펀드를 키운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블랙록 사상 최대 규모의 대체 투자 펀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펀드의 주된 투자 분야는 AI 서비스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사용량을 뒷받침할 발전 시설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협력사로 참여해 자문을 제공한다. GAIIIP 참여사는 입장문을 통해 "펀드의



투자는 국내에 집중될 것이고, 나머지 자금은 미국의 '파트너 국가'에 투자할 것"이라며 "다양한 기업에 (인프라를) 비독점적으로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와 블랙록의 'AI 인프라 동맹'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MS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AI 인프라에 선제 투자해 구글, 아마존 등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려고 한다.

지난 3월 MS가 오픈 AI와 함께 1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6년간 건설하는 '스타게이

트(Stargate)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도 이 전략의 일부다. 블랙록도 최근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분야 등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프라 사업에 특화된 사모펀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십(GIP)'을 125억 달러에 인수했다. 2009년 블랙록이 바클레이즈의 ETF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었다. GIP는 이날 발표된 GAIIIP에도 참여한다.

블랙록과 손 잡은 MS는 생성AI 주도권 경쟁의 동력을 얻게 됐다. 자산운용규모 10조6500억 달러(2분기 말 기준)인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함께 조성한 펀드는 향후 AI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에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윤상연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이락조) 빌딩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홀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홀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하원서 임시예산안 처리 불발...대선 앞두고 섰다운 위기 고조

연방정부 회계연도의 이달 말 종료로 앞두고 하원 내에서 분열이 계속되면서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섰다운) 위기가 19일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하원에서 근소하게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예산 처리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에 대한 시민권 증명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섰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하원은 전날 저녁 정부 섰다운을 피하기 위한 6개월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사진) 하원 의장이 주도한 이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현 220명) 중 14명이 반대했다.

이 임시예산안은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결부돼 있으며 이 때문에 민주당(현 211명)에

서는 3명을 빼고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표결 전부터 부결이 예상돼 있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이 신규 유권자가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연계되면서 반대 방침을 밝힌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임시예산안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도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불법이고 비시민권자의 투표 적발 사례가 드물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규 유권자에 대한 시민권 증명 요구를 정파적인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대선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적지 않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투표 자격 증명 요건 강화(일명 세이프 법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섰다운을 해서라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을 유권자로 등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보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화당은 의회에서 정부 예산을 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에도 "만약 세이프 법안이 그 내용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임시예산안에 동의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유권자로 등록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올해 대선에서 투표하게 될 테니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도 임시예산안 처리 여부 및 기간 등에 대해서 공화당 하원의원간에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6개월이 아닌 3개월 짜리 임시 예산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선 뒤에 다른 법안까지 연계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정식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극우 강경파는 연말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통합적 방식의 예산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6개월을 더 선호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고 취임한 뒤 내년에 정식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이 예산안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존슨 의장은 부결 뒤 "다른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미 동료들과 그들의 많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잡을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회계연도는 이달 말 종료되며 이때까지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되면 10월 1일부터는 연방 정부가 섰다운된다. 다만 여야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섰다운은 피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간의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방무기로 본토 타격 땐 세계 핵전쟁 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하원의장이 서방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본토를 타격할 땐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19일 “서방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를 동원한 세계대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서방국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치른 희생을 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볼로딘 의원은 “러시아는 더 강력한 무기로 대응할 것”이라며 “유럽인들은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S-28 사르마트’가 프랑스의 스트라

스부르에 도달하는 데 3분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서방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우크라이나 요청을 놓고 고민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지만,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제한 해제와 관련한 발표는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할 경우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해리스 “대규모 단속·구금?”...트럼프 ‘추방 공약’ 비판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사진) 부통령이 의료비, 물가, 이민, 낙태 등의 이슈를 앞세워서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대선 초박빙 대결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다양성 옹호를 기치로 내건 민주당을 지지해온 소수인종 유권자가 아직 충분히 결집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하원 히스패닉 코커스 연구소의 리더십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민 문제와 관련, “우리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을 만드는 것과 미국 국경이 안전하도록 확실히 하는 두 가지를 해야 하며,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이어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대규모 단속? 대규모 구금 캠프?”라고 반문한 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애길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의료비 등과 관련, “그들은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를 삭감하고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을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그들은 500만명 이상의 라틴계 미국인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에

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55%를 기록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기록한 히스패닉 지지율 65%보다 낮은 수치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계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도 강화하고 있다.

해리스 대선캠프는 애리조나 등 경합주 7곳 모두를 대상으로 아시아계 유권자를 겨냥한 TV광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주 시청자로 하는 TV 등에서 방영되는 이 광고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자인 자기 모친에 대해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보도했다.

바이든 차남 헌터, 불법총기소지 12월 4일에 형량 선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사진)의 불법 총기소지 혐의에 대한 형량 선고가 오는 12월 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이 법원 서류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류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지난 6월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헌터가 처음이었다.

헌터가 기소된 범죄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지만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 심각한 수준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터는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그가 지난 5일 공판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배심원 판결 절차 없이 12월 16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헌터에 대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형량이 확정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 전에 헌터를 사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다.

푸틴 “올해 드론 생산량 10배 늘릴 계획”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왼쪽)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올해 드론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약 10배 증가한 140만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군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군이 지난해 14만대의 드론을 받았지만, 올해는 140만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 과제는 다양한 종류의 무



인항공기(UAV)를 가능한 빨리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군대의 수요에 더 빨리 대응하는 쪽이 전장에서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드론은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병기로 자리 잡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올해 드론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약 10배 증가한 140만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형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SOLD Bowie \$645,000 <small>싱글홈, 방4, 화4, 차고2</small>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small>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small>	 SOLD Rockville \$280,000 <small>콘도</small>	 COMING SOON Perry Hall <small>싱글홈, 방3, 화2</small>	 UNDER CONTRACT Elkridge \$559,000 <small>타운홈, 방4, 화3, 차고2</small>
 UNDER CONTRACT Elkridge \$950,000 <small>싱글홈, 방5, 화3.5, 차고2</small>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small>콘도, 방2, 화2, 1,438sf</small>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small>타운홈, 방2, 화2.5, 차고1</small>	 COMING SOON Rockville <small>싱글홈, 방5, 화2, 차고2</small>	 SOLD Cockeysville \$470,000 <small>싱글홈, 방4, 화2.5</small>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RENTED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	---	--	---	--	---

혈관 청소 세종송보감에서 -
면역력 최고 세종후코이단까지



카톡으로 'sejong15'를 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TALK

“혈관청소가 면역의 시작입니다”

백세건강의 만사형통은 만사혈통입니다.

전통솔잎을 연구, 개발된 혈관청소 대표브랜드

세종 송보감 FORTE

G.M.P 의약품제조기준, 식약처 인정



특점 **공급**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솔잎종류농축캡슐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명품

세종 기관지정보감

현대인의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까지 해결하세요



하루 1정 복용, 60capsules 2명, 1박스 4개월

“더 좋은 후코이단을 기다리셨어요?”

세종 후코이단입니다!



- 최대함량, 최고순도 후코이단으로 개발된 세종후코이단
- GMP 마크, 원산지까지 청정 후코이단 세종후코이단
- 항암효과와 대명사 표고버섯까지 함유된 세종후코이단

“속~쓰림 힘드시죠?”

세종 속편환



- 비타메이트연구소가 연구개발한 세종속편환
- 식약처(KFDA)가 효능을 인정한 세종속편환
- 위장장애, 속쓰림 등을 해결한 천연제품 세종속편환

“소변관리, 이젠 걱정 없어요”

세종 요로정보감



방광염(오줌소태), 요로감염증, 요실금으로 힘드세요?
신장, 방광, 요로 건강엔 세종 요로정보감입니다.

지긋지긋한 관절통증으로 힘드셨죠?
“이제부터 편히 웃으세요!”

세종 관절보감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손목, 발목 등
원인모를 관절, 연골이상에 식약처에서 효능이
인정된 세종관절보감이 편안하게 도와 드립니다.

기력으로 힘드세요?

高麗 효삼정

“기력회복, 원기충만, 관절건강”



- 현대인의 장기능까지 고려하여 장내 흡수력을 제고한 고려홍삼정
- 기존 홍삼의 효능에 김파룬드케이의 효능까지 배가된 발효홍삼
- 식약처의 인증, GMP마크, 7가지 효능이 인정된 최고의 발효홍삼

깜박깜박하세요? 치매 예방!

세종 뇌보감

Brain Health Formula



- 기억력 개선, 건망증 개선, 치매 예방
- 인지기능개선, 뇌혈행개선을 위한 뇌보약
- 두뇌영양을 통한 기억력개선 촉진

장건강을 위한
500억 균수
세종유산균



당뇨잡는
당뇨비타민
세종여주



보름만으로
면역을 지키세요
세종후코30정



신제품 세종 후코펫 출시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체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원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신제품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한은 “통화정책 여력 커졌다”... 금리인하 변수는 집값·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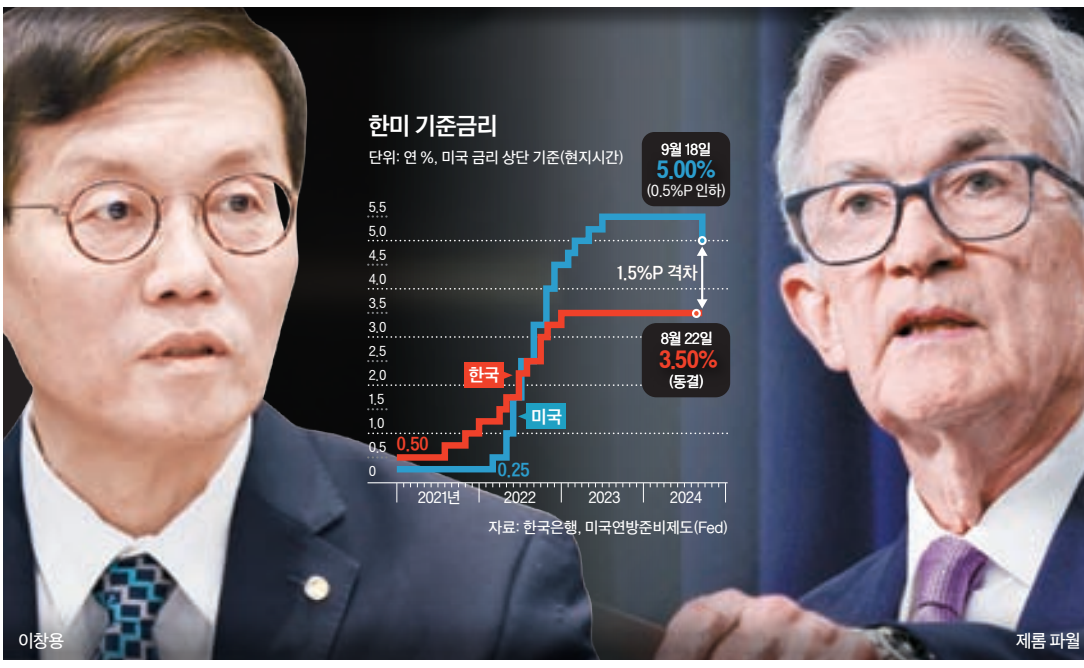
물가상승률 2%, 한은 목표치 도달 전문가 “내수 부진, 금리 내릴 상황” 한은 “집값 자극 안돼” 경계 안늦춰 첫 인하 시기 11월로 밀릴 가능성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년 넘게 싸워 온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의 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으로 30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피벗)하면서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금리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ed는 이날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연 5.25~5.5%였던 기준금리를 4.75~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12명 위원 중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빅컷에 찬성표를 던졌다.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쓸었던 2020년 3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여졌던 한국(3.5%)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포인트로 줄었다.

Fed는 성명을 통해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통화정책) 완화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Fed는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공격적



으로 올렸다. 22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동결됐다. Fed의 총력전에 소비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2022년 6월 고점인 9.1%에서 지난달 2.5%로 낮았다. Fed가 30개월 만에 피벗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다.

시장에선 Fed가 빅컷을 택한 것은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시장의 냉각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한다. 정책결정문에서 고용 증가세는 기존 ‘안화(moderated)’라는 표현이 ‘둔화(slowed)’로 바뀌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해고가 늘기 시작하면 너무 늦는다. 노동시장이 좋을 때 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조정엔 고용시장 강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가 금리 인하 문을 열었

지만, 속도를 더 당길 것으로 시장은 보이지 않는다. Fed는 점도표(금리 전망 도표)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4%(중간값)로 제시했다. 연말까지 남은 두 차례(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추가로 약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얘기가 나온다. 내년에는 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빅컷 소식에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각각 0.25%, 0.29% 하락세로 전환했다. “향후 인하 속도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또 Fed가 빅컷 결정에 나설 만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투자 심리에 반영됐다.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은 향후 빅컷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파적

빅컷’이란 평가를 내렸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19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미국의 피벗이 시작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와 물가만 바서는 10월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미 통화정책 목표치(2%)에 도달한 것이다. 일각에선 물가상승률이 1%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도 걱정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1.9% 하락했



미국 빅컷... 코스피·코스닥은 소폭 상승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19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0.21% 오른 2580.80, 코스닥은 0.86% 오른 739.51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내수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커진 만큼 10월 인하에 나설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세에 무게추를 더 두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하면서 “내수 부진은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금통위 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11일 전까지 나오는 집값·가

계부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둔화세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이 조금씩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과거 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 경계하고 있다”며 “9월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판단해 10월 금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월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지수 등 선행지표가 둔화세를 이어간다면 한은은 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에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집값·가계부채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첫 인하가 11월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염지현·곽재민·오효정·임성빈 기자

트럼프 반대에도 대선 48일 전 빅컷 파월 “특정 정치인 위해 일하지 않아”

트럼프 “경제 매우 나쁜 건 보여줘”

해리스 “미국인들 환영할 만한 소식”

11월 대선을 48일 앞둔 18일(현지시간)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반응이 엇갈렸다.

트럼프는 이날 “그들(Fed)이 정치

를 하는 게 아니라면 금리를 그 정도로 내리는 건 경제 상황이 그만큼 매우 나쁘다는 걸 보여준다”며 “(내가 집권하면) 신속히 인플레이션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7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선 “Fed가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려 할지 모르지만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경우 해리스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판단에서다.

반면에 해리스는 “높은 물가로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X(옛 트위터)에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내가 Fed에서 맞는 네 번째 대선”이라며 “정치적 결정을 한번 시작하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지 못하게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 “우리는 특정 정치인이나 이슈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미국인을 대신해 고용 및 물가 안정을 극대화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포스트에 “이번 금리 인하는 해리스 캠프를 밀어주는 경제적 승풍”이라고 평가했다.

이승호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정선화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 주택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4,200) 렌트 하고 살 투자자
	8003 Fallstaff Rd., McLean	RENTED	UVA 교수로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 옴
	825 N Wakefield Dr., Arlington, VA	\$2,700	주재원 3년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2,800	One Park Crest 콘도
★ 사업체	델라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coway

코웨이 렌탈료 \$1



코웨이 첫 고객 프로모션 | 2024년 8월 28일 - 9월 26일

- 코웨이 첫 고객 : 2024년 9월 프로모션 기간 기준 렌탈/멤버십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고객
- 렌탈료 1불 + TAX. 자동이체시 적용.
- 해당 정수기 6년 신규 렌탈 주문시, 첫 6개월(24년 10월 ~ 25년 3월) 적용.
- 해당 비데/공기청정기 6년 신규 렌탈 주문시, 첫 3개월 (24년 10월 ~ 24년 12월)적용.
- 해당 제품 : P-6320L, CHP-6330L, CHP-251L, CHP-671L, CHP-5722L, CHP-5710L, AP-1516D, AP-2021A, AP-3018B, BA-13, BAS-22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코웨이 법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판매인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본 프로모션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별도의 고지 없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디자인은 당사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이며, 코웨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을 금지합니다.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VA/MD WEEKLY SALE SEP. 20th - SEP. 26th, 2024

KOREAN BIRTHDAY SEAWEED SOUP

Korean seaweed soup, essential for birthday celebrations, offers a unique texture and flavor hard to find in any other cuisine. Let's make it together and celebrate H Mart's 42nd anniversary with this special dish! 생일상에 빠질 수 없는 미역국 초간단 레시피! H마트 42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만들어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VA/ H MART MD



Orri Mandarin 오리 만다린 LB \$0.99	ENVY Apple 엔비 사과 LB \$1.49	Emerald Green Plum 에메랄드 자두 LB \$1.99	White Donut Peach 도넛 복숭아 LB \$2.49	Minneola Orange 미니올라 오렌지 EA \$0.99	Lago Grape 라고 포도 3 LB/BOX \$8.99	Korean Shine Muscat Grape 한국산 샤인머스캣 포도 PKG \$19.99	Yellow/White Nectarine 황/백 천도 복숭아 LB \$1.99	Korean Melon 참외 BOX \$18.99
Cilantro 고수 BUN 3\$0.99 FOR	Jujube 생대추 LB \$1.49	Young Coconut 영 코코넛 EA \$2.99	Celery 셀러리 BUN \$0.99	Yellow Peach 황도 복숭아 LB \$1.99	Jacket Broccoli 자켓 브로콜리 EA \$2.49	California Fuyu Persimmon 단감 BOX \$21.99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59	Korean Dried Radish Slice 한국산 무말랭이 LB \$6.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Conical Muscle 생 약아롱사태 (상박살) LB \$9.99	Fresh Beef Flank Meat Chunk 육개장용 앞치마살 LB \$8.99
Fresh Boneless Pork Shoulder Butt Chunk 생 돼지 목전지살 LB \$3.99	Fresh Pork Back Bones 생 돼지등뼈 FAMILY PACK LB \$1.59
Fresh Chicken Drumstick 생 닭뿔채(닭다리) FAMILY PACK LB \$0.99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사태살 LB \$4.5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Abalone 활 전복 EA \$2.99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6.99
Frozen Tuna Steak 참치 스테이크 8 OZ SIZE/ LB \$9.99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 SIZE LB \$2.99
Frozen Pollock 동태 500-900 SIZE LB \$1.99	Frozen Cooked Short Neck Clam Meat 바지락살 300-500 SIZE LB \$4.99

SMART CARD MEMBER ONLY

KOKUHO California Premium Organic Rice 국보쌀 (젤로우) YELLOW/ 15 LB \$9.99	Lago Blueberries 라고 포도 BOX \$14.99
CHUNGJUNGONE O'Food Gochuj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창 100% 원미 태양초 찰 고추장 6.6 LB \$12.99	BEYOND THE OCEAN Frozen Small Octopus 바다너더 상상낙지 WHOLE/1.5 LB \$10.99
CHUNGJUNGONE O'Food Sesame Oil 청정원 오푸드 통창계 참기름 KOREAN STYLE TOASTED 55.8 FL OZ \$14.99	CJ Biggo Mandu Dumplings 바비고 만두 왕교자 FROZEN/SELECTED VARIETIES/ 1.5-2 LB \$7.99

ORGANIC All natural certified delicious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Haiga Mai Rice 유기농장 유기농 안심베아미 15 LB \$39.99	ORGANIC FARM Organic Black Bean 유기농검 검은콩 3 LB \$9.99	HERB & HONEY Whole Oats 허브앤허니 통귀리 3 LB \$7.99
---	---	--

RAW NATURE Sweet Rice 자연달은 쌀살 15 LB \$12.99	NONGSHIM Ramyun 농심 신라면/사천백짬뽕 SELECTED VARIETIES 3.31-4.58 OZ X 4 EA/PKG \$7.99	OTTOGI/PALDO Instant Cup Noodles 오뚜기 진라면 크립/팔도 김컵 SELECTED VARIETIES 3.7-3.88 OZ \$1.99	TONG TONG BAY Premium Jiri Anchovy 통통배 지리멸치 FROZEN 1 LB \$14.99	SEMPIO Soy Sauce (501/701) 설탕 양조간장 (501/701) 1.7L \$7.99	CHUNGJUNGONE Perilla Oil Traditional Laver 청정원 바사삭 들기름김 재래김 0.14 OZ X 16 EA/PKG \$5.49	CHUNGJUNGONE O'Food Mandu 청정원 오푸드 만두 FROZEN/SHRIMP/HOT PEPPER JAPCHAE/KIMCHI/VEGETABLE/17.6-24 OZ \$5.99
DONGWON Cooked Rice 동원 찰지고 부드러운 밥 SELECTED VARIETIES 7.4 OZ X 3 EA/PKG \$4.99	CHILGAB Perilla Seeds Noodles 칠갑 들개 칼국수/수제비 SELECTED VARIETIES/14.4-15.3 OZ \$3.99	HAIJO Korean Style Gold Noodles 해오름 비빔/물 냉면/ 물면 ALL VARIETIES/15.5-35.36 OZ \$1.99	PULMUONE Noodles 풀무원 평뽕/칼국수/짜장면/우동 SELECTED VARIETIES/12.8-22.6 OZ \$4.99	K TOWN Dukboki 케이타운 떡볶이 +풀면사리 FROZEN/ FROZEN/ 11.58 LB \$5.99	PULMUONE Plantspired Plant Based Steak 풀무원 식물성 스테이크 FROZEN KOREAN BBQ/GOCHUJANG/14 OZ \$6.49	TXF Frozen Roasted Eel (Unagi Kabayaki) TXF 냉동 우나기 9 OZ \$7.99
HORMEL FOODS Spam 스팸 ORIG./LITE/ 25% LESS SODIUM 12 OZ \$3.99	ARIZONA FARM Natural Honey 아리조나팜 내추럴 허니 WILD FLOWER/ORANGE BLOSSOM/GOLDEN/CLOVER - 32 OZ \$6.99	PULMUONE Corn Dogs 풀무원 모짜렐라/채다모짜/ 통모짜 감자 핫도그 FROZEN/SELECTED VARIETIES/12.7-14.1 OZ \$5.99	SAJO Kimbap 사조 김밥 FROZEN/MUSHROOM & JAPCHAE/ FRIED TOFU & BURDOCK/TUNA 8.1-8.4 OZ \$2.99	BINGGRAE Samancho Frozen Dessert Sandwiches 빙그레 싸만코 아이스크림 ORIGINAL/STRAWBERRY/CHOCOLATE/ GREEN TEA - 5.07 FL OZ \$5.49	ORION O'Tube Snacks 오리온 오튜브 스텍 HONEY BUTTER/JALAPENO/SWEET CHILLI/BARBEQUE/CHEEDER CHEESE - 4.06 OZ \$2.49	HAITAI Ace Crackers/ Butter Ring Cookies 해태 에이스(오리지널)/ 바스키치즈케이크/버터링 6.85-12.84 OZ \$3.99

JINGA 진가반찬 JINGA SIDE DISHES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SUPERIOR FRESHNESS. UNMATCHED TASTE.

HELLO HOME SMILE, YOU'RE HOME!

CIMILAX Daily Mixing Bowl 씨밀락스 한국산 데일리 믹싱볼 PRODUCT OF KOREA MEDIUM/GREEN 2.4L/EA \$2.99	KüHAUS Smart LED Warm Mist Humidifier 쿠하우스 스마트 LED 플라미스트 가습기 4L/WHITE EA \$24.99
KüHAUS Smart Dial Electric Tea Kettle 쿠하우스 스마트 전기 티팟 주전자 SAGE/1.5L EA \$42.99	Reversible Kitchen Mat 양면 싱크매트 (스리브) SMALL(750 X 460 X 14 MM)/ MEDIUM(950 X 460 X 14 MM)/ LARGE(1200 X 460 X 14 MM) OLIVE/EA \$12.49-17.99

HAIO 두 번 구워 더욱더 맛있는 해오름 도시락김 선물세트 Premium Roasted Seaweed Green Laver Gift Set

HAIO EXCLUSIVE! TOP SELLER SEAWEED LAVER.
Add KakaoTalk Channel, Get a Coupon!
\$10 OFF COUPON
EVENT PERIOD JUL. 22ND - SEP. 22ND, 2024
KakaoTalk VIRGINIA/MARYLAND

“폭탄베베 공급한 헝가리 회사,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주인”

레바논, 베베·무전기 연쇄 테러
NYT “수년 전 유령회사 차려 작전”
기기 생산은 8200첩보부대가 개입
헤즈볼라, 로켓으로 첫 반격 개시
이스라엘 “전쟁 중심 레바논으로”



지난 18일 무전기 폭발로 손상된 레바논 남부 시돈의 휴대전화 가게 앞에 군인들이 모여 있다. 작은 사진은 18일 레바논 동부 발백의 한 주택에서 폭발한 무전기 잔해. [AP·연합뉴스]

최근 레바논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무선호출기(베베)’가 제작된 헝가리의 공장은 이스라엘의 유령 회사가 운영하던 곳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년 전부터 유럽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제조 단계에서부터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삽입된 폭탄 베베 수천 개를 헤즈볼라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NYT는 익명의 이스라엘 정보당국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대만 기업 골드아폴로의 수주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BAC 컨설팅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라며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가 이 공장 외에도 최소 두 곳이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BAC는 평상시엔 정상 제품을 제조했지만, 헤즈볼라가 주

문한 제품은 ‘폭탄 베베’로 만들었다. 폭약을 넣거나 배터리 표면에 고 폭발 물질인 펜타에트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PETN)를 바른 제품이였다. BAC는 폭탄 베베를 2022년 처음 레바논에 배신했다. 당시엔 소량에 머물렀지만, 올해 초 헤즈볼라가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베베 사용을 시작한 뒤 수천 대가 제작·배송됐다.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최근 헤즈볼라 대원이 폭탄 베베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관련 작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결국 ‘당장 작전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미국 당국자는 “찌머릭 않으면 잃게 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악시오스는 전했다.

헤즈볼라가 조직 차원에서 휴대전화 대신 베베를 사용한 데엔 이스라엘 측의 선전이 역할을 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NYT는 다양한 소문 등으로 휴대전화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만든 주체가 이스라엘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폭탄 베베의 배후와 관련해 이스라엘군 비밀 첩보기관 8200부대가 주목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8200부대가 베베와 무전기 생산 단계에서 폭약 장착 시험에 개입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 내 우수한 인력 수천 명을 보유한 8200부대는 18~21세의 젊은이 중 적응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별하며, 미 국가안보국(NSA)과도 연계해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200부대 전역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 고위직에 오르거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레바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베베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터져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친 데 이어 18일엔 무전기 수십 대가 연쇄 폭발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450명 이상이 다쳤다. 무전기뿐 아니라 태양광 장비도 갑자기 폭발해 헤즈볼라의 거점인 베카팔리와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 등에서 최소 60대의 집과 상점, 수십 대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화재에 휩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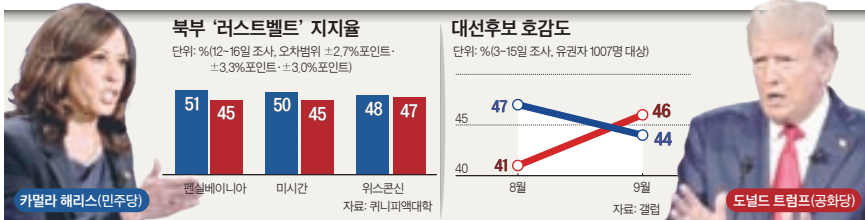
헤즈볼라는 18일 “레바논 국민을 학살한 적에 대한 가혹한 대응”을 천명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베베 폭발 사건 후 첫 공격으로 이스라엘 포병 진지를 로켓으로 공격했다.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날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무계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쟁의 주역이던 육군 98사단을 레바논과의 국경 인근인 이스라엘 북부로 이동 배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피란을 떠난 6만 명의) 북부 주민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다.

백일현·한지혜 기자

TV토론 뒤 지지율 오른 해리스, 호감도는 하락... 트럼프 공격 먹혔나

해리스, 펜실베이니아선 6% 우세
남부 ‘선벨트’ 서도 지지율차 줄어
트럼프 호감도는 한달새 5%P 올라



지난 10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 토론 이후 주요 경합 지역에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동시에 비교감도도 트럼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의 비교감도 상승은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공격해 온 트럼프의 전략이 일부 유권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퀴니피악대가 18일(현지시간) 발

표한 여론조사에서 7개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배정된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는 51%의 지지율로 트럼프(45%)를 앞섰다. 지지율 격차 6%는 오차범위(±2.7%포인트)를 넘어섰다.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와 함께 북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3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과 위스콘신에

서도 각각 50 대 45%, 48 대 47%로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다. 만약 해리스가 이들 3개 주에서 승리할 경우 11월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해리스의 상승세는 트럼프가 다소 앞섰다고 평가되는 남부 국경 인근 ‘선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AJC)과 조지아주립대의 조지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

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4%의 지지율로 트럼프(47%)와의 격차를 3%포인트로 줄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직전인 지난 7월 조사에선 두 사람의 격차는 5%포인트였다.

그러나 해리스가 TV토론에서 ‘판정승’을 거두고도 큰 폭의 지지율 상승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 해리스가 너무 진보적인 것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리스의 호감도는 ‘급진 좌파’ 프레임을 내세운 트럼프와의 대결을 거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공개된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의 호감도는 46%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반면, 해리스의 호감도는 3%포인트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투표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의 비호감도 역시 해리스는 54%로 트럼프(53%)보다 높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두 차례의 암살 미수 사건을 언급하며 “신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내 생명을 구했다”며 “트럼프가 뉴욕주를 바꾸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신이 날 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역대 공화당 정권에서 일했던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100명 이상이 공동성명을 내고 올해 대선에서 해리스를 공개 지지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미 정보당국 “이란, 트럼프 캠프 해킹... 훔친 자료, 바이든에 보내”

“NYT 등 언론사에도 발송” 발표
트럼프 “해리스, 자료에 대해 밝혀야”

이란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를 해킹해 훔친 자료를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에 보냈다고 미 수사·정보당국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보국장실(ODNI), 연방수사국(FBI), 사이버·인프라보국(CISA)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6월 말~7월 초 이란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트럼프 캠프에서 훔친 비공개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이든 캠프 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며 “바이든 캠프

측이 이에 답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메일 발송된 시점은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사퇴한 7월 21일 이전이다.

ODNI는 미국의 정보공동체(IC)를 총괄하는 곳이며, FBI는 미국 내 범죄를 담당한다. CISA는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기관으로 미 정부에 대한 해킹을 방

어하는 곳이다.

ODNI 등은 성명에서 “이란 행위자들은 지난 6월부터 트럼프 캠프에 관한 비공개 자료를 훔쳐 미 언론사에 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0일 폴리티코는 7월 22일부터 ‘로버트’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트럼프 캠프 내부 문서를 자신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낸 이메일 중 하나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댄스 상원의원(오하이오)에 관한 내용이었다. NYT 워싱턴포스트 역시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는 “이란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추가 증거”라며 “해리스와 바이든은 해킹된 자료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 화3.5/ 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 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 방3. 화 2.55/ 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 Bathrooms)	** 방4/ 화3.5/ 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김경아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매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MARKET INTERNATIONAL FOOD

4239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www.kmarketusa.com | 703-712-7089



WEEKLY SALE

9/20-9/26/2024
할인 상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DISCOUNT PRODUCTS MAY SELL OUT EARLY.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PRODUCE

플럼토마토 Plum Tomato 3 DAYS ONLY (금,토,일) 0 ⁹⁹ LB	만다린 Mandarine 3 DAYS ONLY (금,토,일) 1 ⁷⁹ LB	후지사과 Farm Fuji Apple 3 DAYS ONLY (금,토,일) 0 ⁹⁹ LB	청포도 Shine Green Grape 3 DAYS ONLY (금,토,일) 7 ⁹⁹ 3LB /EA
아보카도 Avocado 3 DAYS ONLY (금,토,일) 1 ⁴⁹ EA	컬리플라워 Cauliflower 3 DAYS ONLY (금,토,일) 1 ⁹⁹ EA	거봉포도 Kyoho Grape 3 DAYS ONLY (금,토,일) 7 ⁹⁹ 3LB /EA	곶감 Dried Persimmon 3 DAYS ONLY (금,토,일) 12 ⁹⁹ 3LB /PK
팽이버섯 Enoki Mushroom 3 DAYS ONLY (금,토,일) 1 ⁷⁹ 200G /EA	골든키위 Golden Kiwi 3 DAYS ONLY (금,토,일) 9 ⁹⁹ 2LB /EA	새송이버섯 King Oyster Mushroom 3 DAYS ONLY (금,토,일) 2 ⁹⁹ LB	머스캐딘 포도 Muscadine Grape 3 DAYS ONLY (금,토,일) 3 ⁹⁹ 200OZ /EA
라고포도 Lago Grape 3 DAYS ONLY (금,토,일) 10 ⁹⁹ 3LB /EA	깐마늘 Peeled Garlic 3 DAYS ONLY (금,토,일) 15 ⁹⁹ 5LB /EA	납작양배추 Flat Cabbage 3 DAYS ONLY (금,토,일) 0 ⁶⁹ LB	로메인하트 Romaine Heart 3 DAYS ONLY (금,토,일) 2 ⁴⁹ EA
청상추 Green Leaf 3 DAYS ONLY (금,토,일) 0 ⁹⁹ EA	한국배 Korean Pear 3 DAYS ONLY (금,토,일) 9 ⁹⁹ 3PCS /EA	그린호박 Green Squash 3 DAYS ONLY (금,토,일) 0 ⁹⁹ LB	캘리포니아 건대추 California Dried Date 3 DAYS ONLY (금,토,일) 9 ⁹⁹ LB

SEAFOOD

살아있는 민물장어 Live Eels 15.99 11⁹⁹ LB	타이거 새우 Tiger Shrimp 12.99 10⁹⁹ LB	아구목통 Monk Fish 4.99 3⁹⁹ LB	갈치 Belt Fish 4.99 3⁹⁹ LB	통박치 Octopus 13.99 11⁹⁹ 1.5LB	스노우크랩 Snow Crab 14.99 11⁹⁹ 5LB /PK
---	---	--	--	--	--

MEAT

육개장 Beef Flank Steak Meat 12.99 9⁹⁹ LB	탕갈비 Beef Short Ribs Chop 10.99 8⁹⁹ LB	돼지목뼈 Pork Neck Bone 2.29 1³⁹ LB	생수육삼겹 Pork B/I Belly Chunk 6.99 5⁷⁹ LB	피계용돼지갈비 Pork Spare ribs End Cut 4.99 2⁹⁹ LB	닭다리페밀리팩 Chicken Drumstick/Family Pack 1.09 0⁸⁹ LB
--	---	---	--	---	---

GROCERY

세카 쌀 Seka Rice 15LB 14.99 10⁹⁹ EA	시라기쿠 참기름 SHIRAKIKU Roasted Sesame Oil 1.65L 19.99 12⁹⁹ EA	청정원 순장조개멸치 된장찌개양념 Sunchang Doenjang 900G 10.99 8⁹⁹ EA	CJ 해찬들 진한맛 고추장+쌈장 Gochujang+Saamjang 1KG/170G 8.49 5⁹⁹ EA	동원 자연산공치/자연산고등어 DONGWON Canned Mackerel Pike/Mackerel 14.01OZ 5.99 3⁹⁹ EA	백설플라토 올리고당 Oligodang Syrup 1.2KG 7.99 4⁹⁹ EA
Ofood 바삭부침가루 바삭튀김가루 Korean Crispy Pancake Mix/Frying Mix 1KG 3.99 2⁹⁹ EA	대천김 곱창도시락김 12봉 Seaweed Dosirak Gopchang 12PK 6.99 4⁹⁹ EA	대천김 김자반볶음/파래김자반 Roasted Seasoned Laver Snack/Green Tea Snack 60G 2.99 1⁹⁹ EA	해태 허니버터칩 HAITAI Honey Butter Chip 120G 5.99 3⁴⁹ EA	칠갑농산 더욱 고소한 누룽지 Nugungji 1KG 12.49 9⁹⁹ EA	동원 런치미트 Luncheon Meat 340G 3.99 2⁹⁹ EA
농심 신라면 박스 Shin Ramen Box 10PK 14.99 9⁹⁹ EA	시라기쿠 사누끼 우동 SANUKIYA Udon 2.75LB 5.99 3⁹⁹ EA	CJ 가쓰오/튀김 우동 Udon Noodle Soup/With Tempura 466G 5.99 4⁹⁹ EA	ITOEN 녹차/진한녹차 Unsweetened Green Tea/Bold Green Tea 2L 6.49 4⁴⁹ EA	롯데 홈베이커리 오리지널/카카오 Dream Cake (Original/Cacao) 12PK 7.99 4⁹⁹ EA	허니클로버 스위스 롤 케익 (모든 맛) Honey Clover Swiss Roll Cake (All Flavor) 200G 6.49 4⁴⁹ EA
이찌방 라면 ICHIBAN Original Noodles 5PK 6.49 3⁹⁹ EA	꽃샘 꿀매실/유자/생강/청귤/패션후르츠차 Honey Plum/Citron/Ginger/ Green Tangerine/Passion Fruit Tea 1KG 7.99 5⁹⁹ EA	롯데 칠성사이다 Chilsung Cider 6CANS 6.99 4⁹⁹ EA	롯데 2% 부족할때 복숭아/밀키스 LOTTE Refreshing Water 2%/Milks Drink 1.5L 5.99 4⁴⁹ EA	TERRA 테라맥주 TERRA Beer 12CANS 21.99 16⁹⁹ EA	

HOUSEWARES

물먹는 탱크 Clean House Tank (Moisture Remover) 2for 3⁰⁰ EA	에스테디 알로에 베라 젤 Esthete Aloe Essence Gel 473ML 9.99 6⁹⁹ EA	하리오 슬림냉장고물병 (고급형) HARIO Refrigerator Pot Slim 1400ML 9.99 7⁹⁹ EA	리빙플러스 티 주전자 Living Plus Glass Teapot with Filter 900ML 8.99 5⁹⁹ EA	대한홍삼절편 Daehan Red Ginseng Sliced 200G 49.99 39⁹⁹ EA	정관장 홍삼원 Korean Red Ginseng Drink 50ML 60PK 129.99 89⁹⁹ EA
--	---	---	---	--	--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 and description.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아니겠소”... 영광·곡성 팽팽한 민심

전남 군수 재선거 2곳 가보니

“이재명 될 잘했나” “조국 입시비리” 민주당 텃밭이지만 쏠림은 없어 이 대표 23일 현장 최고위 열기로 조 대표, 두곳에 월세방 얻고 지원

“이번에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를 보고 뽑는 선거 아니겠소.” 전남 영광에서 굴비집을 운영하는 조영순(71)씨는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라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곡성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임대섭(59)씨도 같은 날 열리는 곡성군수 재선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 민주당 지지가 높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거나 그런 것”이라며 “호남은 정치 1번가여, 단순하게 생각은 안 해부리”라며 손사래쳤다.



10·16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	●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
● 김경지 전 지역위원장	● 안연희 전 광택부시장
● 류제성 변호사	● 안상수 전 인천시장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	●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 박용두 전 복지부 전문위원	● 장현 전 호남대 교수
● 정환태 전 전남도의원	● 이석하 전 지역위원장
● 국=국민의힘 ● 민=더불어민주당	● 조=조국혁신당 ● 진=진보당 ● 무=무소속

전남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선종채씨(왼쪽 사진)는 “민주당 후보가 인지도도 높고 지역도 잘 행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전남 영광터미널시장에서 굴비 가게를 운영하는 조영순씨는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건 옛날 얘기”라고 말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가 중앙 정치 무대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앙일보는 18~19일 이틀간 영광·곡성에서 유권자를 만났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바닥 민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경향이 었 보였다.

특히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투표 의향에 강하게 투영했다. 영광군청 근처에서 만난 오진우(64)씨는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를 압박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을 밀어야 한다”고 했다. 영광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김창조(74)씨도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보다 더 빨리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에 영광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조 대표가 늘 바른말을 하고 나라를 위해 뭐가 해낼 수 있는 분 같다”며 “이번에는 조 대표에게 힘을 싣고 싶다”고 했다.

후보 간 경쟁은 치열하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가 초접전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9월 10~11일)에서는 두 후보 격차는 0.5%포인트(장세일 29.8%-장현 30.3%)에 불과했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최정애(62)씨는 “민주당이 너무 못한다. 뭘 해줬냐, 너무 오래 해서 싹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영광터미널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군수는 무조건 선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를 밀겠다”고 했다.

곡성군수 재선거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9월 10~11일) 결과,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9.6%로 1위를 달리고 박용

두 조국혁신당 후보(18.5%)와 정환태 무소속 후보(11.0%)가 뒤를 쫓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혁신당은 광주·전남·전북에서 45.6%를 득표해 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38.1%)을 앞섰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에서 전남 투표율은 23.2%로 전국 투표율(30.9%)보다 낮았다.

양당 대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조 대표는 영광·곡성 두 곳에 월세방을 두면서 출근 인사 등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질세라 23일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한울 한국사탐연구위원장은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1당이 누구냐를 겨루는 선거”라며 “향후 지방선거, 나아가 대선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효성 기자, 영광·곡성=김정재 기자

관심한 행태가 반복되는 점이 꼽힌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를 세액공제 해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장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한국 국회 신뢰도 OECD 30개국 중 28위 ‘꼴찌권’

한국보다 낮은 곳은 체코·칠레뿐 “국회가 민생 외면, 정책 반복한 탓”

한국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에 둔 채 여야 간 경쟁만 반복하면서 국회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OECD 2024년 공공기관 신뢰

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치인 36.5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체코와 칠레 2개국뿐이었다. OECD는 2년마다 주요국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공공기관 신뢰도를 발표한다.

국회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7.25%)·스위스(56.21%)·노르웨

이(53.7%)·핀란드(53.67%)·아일랜드(49.13%) 등 대부분 서구권 국가로 나타났다. 미국·일본 등 일부 OECD 주요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37.15%로 1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39.3%)에 근접한 수준이다.

국회 신뢰도가 바닥을 찍는 가장 큰 원인은 여야가 정쟁에 몰두해 당장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무

관심한 행태가 반복되는 점이 꼽힌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시설투자비를 세액공제 해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장 원전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한국의 국회 신뢰도, OECD 평균 이하

단위: %, OECD 30개국 대상 설문조사 자료: OECD

OECD 평균 36.52	
1 룩셈부르크	57.25
2 스위스	56.21
3 노르웨이	53.7
4 핀란드	53.67
27 콜롬비아	23.05
28 한국	20.56
29 체코	19.73
30 칠레	18.61

용산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대화 가능, 의료계 참여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난항 대통령실 “내년 정원은 조정 불가” 의협 “태도변화 우선” 불참 고수 한동훈 “연휴 때 의료계 만나 설득” 박단 “한 대표와 소통 없었다” 반박

의대증원 갈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연휴 중에도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갔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는 한 대표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는 등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

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추석 당일인 17일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는 불밀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증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꿀 생각이 있어야 그때부터 논의 시작될 수 있다”며 “지금 흘러져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건 처

음부터 명확했다. 정부만 입장 변화를 명확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상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했다. 장 수석은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장 수석은 “이미 대학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

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일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고 있다. 이런 대통령실의 완고한 입장에 의료계는 재차 협의체 불참 의사를 굳히는 모습이다. 여당이 아무리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하자고 설득해도,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협의체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만약 오늘 대통령실에서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도 (조정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발표했다면 참여를 고려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불가 입장) 못 박고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실은 그냥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길 바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전공의·의대생이 2025년도 증

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2026년도 정원부터 얘기하자는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수현·문상혁 기자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주 1회 성인 진료 중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연합뉴스]

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2026년도 정원부터 얘기하자는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수현·문상혁 기자

SELFOTO STUDIOS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내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중요합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최고의 시설 (1인/1실)
- INOVA 병원 5분 거리
- 한국 TV 시청 가능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문의 703-980-9890

대통령 배웅 한동훈, 24일엔 용산만찬... 윤·한 터닝포인트?

당정 지지율 동시 하락, 공멸 위기감 대통령, 정진석 실장 만찬제안 수락 여·야·의·정협외체 핵심 의제 될 듯 여론내 “당정 시각차 이번에 좁혀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체코 공식 방문차 19일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환송하러 온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친 뒤인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번 만찬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뼈격 대던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한 만찬’ 일정을 알린 정세균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찬에는 당에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7·23 전당대회 하루 뒤, 한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의 패자들을

대통령실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로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했다. 두 번째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었지만 대통령실이 민생 대책 대응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의료개혁 해법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입장 차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지난

달 25일 고위당정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며 하루 만에 거절했다. 이후 만찬을 연기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연찬회와 워크숍에도 불참했다. 9일엔 비한계 의원들만 초청해 비공개로 만찬을 한 게 알려지면서 ‘윤·한 갈등설’이 다시 부상했다.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등 공멸 위기감이 번지자 미뤄던 만찬이 재성사됐다. 24일 만찬 회동은 “체코 공식 방문 전에 날짜를 확정하는 게 낫겠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번 만찬의 핵심 의제는 의·정 갈등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온 ‘여·야·의·정 협외체’ 출범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입장 차를 조율하는 게 관건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위원회에서 “날짜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며 조속한 협외체 구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의사들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당정의 일차원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정쟁 수위를 높이는 것도 당정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론 관계자는 “총선부터 9개월간 이어져 온 여론 내 신경전을 온전히 봉합하지 않으면 공멸”이라며 “이번 만찬에서 확실하게 용산과 온도 차를 낮추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 [뉴시스]

“두코바니 원전계기, 체코와 협력 강화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정상회담 대통령실 “한·미 원전동맹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프라하를 공식 방문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동맹 구축에 나섰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 뒤 열린 파벨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외교안보·국방·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 협력을 전면 강화

하기로 했다”며 “특히 지난 7월 한국 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이 합

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협력과 더불어 양국은 바이오·디지털·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내년 3월 체코 정부와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과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원자로 설계 기술에 활용했다며 자사의 허락 없이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중국서 피습 일본 초등학생 사망... 중·일 관계 먹구름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던 일본인 초등학생이 피습 하루 만인 19일 숨졌다. 일본 정부는 “아이를 공격한 비열한 행위는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이날 웨이보(중국판 X) 공식계정을 통해 “18일 선전 일본인 학교의 한 아동이 등교 중 습격을 받아 다쳤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19일 새벽 사망했다”며 “이에 깊은 비통함과 유감을 느끼며 진심 어린 애도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 측은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일본인 교민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진상을 규명하며, 유사한 사



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대사관에 게양한 조기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지난 18일 오전 선전시에선 일본인 학교에 재학하는 10세 남자 초등학생이 등교 중 학교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 같은날 선전시 공안국은 통지를 통해 “용의자 44세 중(鍾) 모 씨를 현

장에서 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주중 대사관, 주광저우 총영사관으로부터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일본인 안전 확보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하야시 장관은 해당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야시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는 점을 재차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중국 당국과 연계해 재류 중인 일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도쿄=신경진·김현예 특파원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왼쪽 사진)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 등 대검검사(검사장)급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심우정(26기)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식 당일 발표된 첫 검찰 고위급 인사다. 김 차관은 판사로 임관해 2002년 검사로 전환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진동(28기·오른쪽) 대구고검장,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31기) 광주

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신자용(28기) 현 대검 차장검사와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서울고검장과 대구고검장엔 박세현(29기) 현 서울동부지검장, 신봉수(29기) 광주고검장이 임명됐다. 임승철(31기)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석경민·양수민 기자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입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산삼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

미국 가장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저와 현지인이 직접 캐온 야생 산삼입니다.

면역력 | 항암효과 | 당뇨 | 혈압 | 체력증강

1/2 Pound \$600부터

Dealer No. 90-491972 • Permit No. 007669

문의 (571) 236-8591

14800 Rydell Rd., Centreville, VA 22121

이라크부터 찾아간 이란 대통령, 경제제재 완화에 전력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지난 11일 이라크를 방문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이웃 이라크를 선택한 데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외교 노선과 국제질서, 중동 지역 내 국가 간 역학에 비춰 여러모로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라크는 이란의 안보와 경제에 가장 중요한 나라다.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 직후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는 친이란 시아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에서 이라크를 거쳐 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지역'을 완성했다.

미군의 이라크 주둔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최근 몇 년 동안 이란과 이라크 관계가 더 발전하지 못하였지만, 양국 모두 서로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특히 이웃 이라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란의 열망이 여느 때보다 크기에 페제시키안의 이라크 방문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수출 대금 110억 달러 회수도 현안

이란이 이라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들 평가하지만, 이라크에 군을 주둔하면서 이란을 제어하려는 미국 때문에 이란은 사실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가 이란에 줘야 할 110억 달러(약 14조 6000억원)가 이란으로 가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이라크에 온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110억 달러를 돌려받는 것이다.

이라크 은행에 묶인 돈은 이란이 이라크에 수출한 상품과 전기·가스 대금이다. 이라크 정부 역시 이란에 돈을 주고 싶어도 미국의 경제제재를 무시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제재로 이란에 줘야 할 70억 달러를 주지 못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이란 대통령의 방문에서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란 언론 "놀라운 공공외교" 평가

이란과 이라크의 경제적 현안은 110억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 이란이 그리는 지정학·지경학적 큰 그림에서 이라크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라크 방문 첫날 바그다드에서 수다니 이라크 총



이라크를 방문 중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왼쪽)이 지난 12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네치르반 바르자니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이라크 선택 유연한 외교 행보 관심, 소수민족 쿠르드 지도자와도 친밀감 표현 미국은 인도~중동~유럽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경제회랑 추진 중 중앙아시아서 러시아 영향력 견제하는 미국·이란 협력 가능성도

리와 회담을 연 뒤 쿠르드애국연합당(PUK)의 압둘 라티프 라시드를 만났다. 이틀날 아르빌에서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인 네치르반 바르자니, 쿠르드민주당(KDP) 지도자 마수드 바르자니와 대화를 나눴다.

쿠르드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정부 관리의 보통 아르빌만 방문하는데, 페제시키안은 이례적으로 술라이마니아까지 가서 PUK 지도자 바벨 탈라바니를 만났고, 고인이 된 PUK 지도자 잘랄 탈라바니의 무덤까지 방문했다. 아르빌의 KDP와 술라이마니아의 PUK는 경쟁 관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런데도 두 지역이 모두 중요하기에 페제시키안은 양측을 모두 방문했다. 쿠르드 정치평론가들은 페제시키안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라크 쿠르드 지도부와 페제시키안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쿠르드 지역 방문에서 페제시키안의 매력에 돋보였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출신인 아버지와 쿠르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쿠르드 지역인 마하바드 태생으로 쿠르드어를 할 줄 안다. 역대 이란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의 쿠르드 지역을 방문한 페제시키안은 쿠르드어로 묻는 기자의

질문에 쿠르드어로 대답하여 쿠르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시아파 전승에서 코란과 예언자 언행 집 다음으로 중요한 이맘 알리의 어록인 나흐줄 발라가를 인용해 "모든 무슬림은 동등하다"며 늘 차별에 고통받는 쿠르드인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란 언론의 표현을 빌자면 '놀라운 공공외교'다.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맞붙는 전선

이란은 이라크의 안보를 자국의 안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고 있다. 국경을 맞댄 이라크가 혼란에 빠지면 이란 역시 불구덩이로 빠지기 때문이다.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발흥으로 이미 흉역을 크게 치른 바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이미 이란은 이라크 정부와 안보 협정을 체결할 바 있다. 아울러 이라크 쿠르드 지역은 이스라엘과 맞붙는 전선이기도 하다. 이란이 시아파 초승달 지역을 이용해 반이스라엘 저항 전선을 구축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란과 국경을 맞댄 나라에서 이란을 괴롭히는 반이란 전초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쿠르드인들은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이란-이라크-시리아-튀르키예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란 쿠르드 지역

서 독립운동을 하는 반정부 쿠르드인들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이란으로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이 모른 채할 리 없다.

이라크가 지난 1월 쿠르드 아르빌 지역에서 미사일과 자살 드론 수십 발을 발사해 저명한 쿠르드인 사업가를 포함하여 적어도 네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이란은 공격 목표물이 이스라엘 모사드 기지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라크와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이란을 비난했다.

아울러 이라크 쿠르드 지역은 에너지 통로로 지경학적 고속도로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속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두고 국제적인 경제회랑 확보 전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고자 여느 때보다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빠격거리는 이란-러시아 관계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인도-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등과 야심 차게 추진하던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미국은 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IMEC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무력화하는 경제회랑인데, 회랑에서 제외된 이란 역시 반감만한 무역로는 아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지중해에 도달하려는 이란의 전략적인 계획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미군이 주둔하면

서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라크 쿠르드 지역과 이라크가 안정되면 이란에서 출발해 바그다드와 이라크 쿠르드 지역, 시리아 북부 지역을 거쳐 시리아의 라타키아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페제시키안의 이번 이라크 방문은 이란이 이라크 쿠르드 지역과 이라크와 긴밀하게 안보와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이란은 또한 아르메니아를 통과하는 흑해-페르시아만 회랑을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는 국제 남북 회랑과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 땅인 나흐츠반을 거쳐 아르메니아로 이어지는 철로를 놓아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란은 최근 러시아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이 추진하는 장게즈르 회랑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으로 흑해-페르시아만과 국제 남북 회랑을 연결하려는 이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게즈르 회랑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를 거쳐 나흐츠반을 거쳐 튀르키예로 연결하는 철로를 말한다. 이 회랑이 건설되면 이란이 꿈꾸는 전략적 회랑이 무산될 뿐 아니라 러시아군이 이란 국경 근처에 주둔한다. 이란이 반길 수 없는 일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성공할까

아르메니아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은 아르메니아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란은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이는 아제르바이잔보다는 아르메니아에 가깝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가스를 대체해 이란산 가스를 받고, 반대급부로 향후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란에 공급하도록 허용할까? 러시아·중국·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정책이 이란에 계속 불리하게 작동할지, 아니면 페제시키안의 유연한 외교 노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다만 현재 페제시키안의 열정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공급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악한 계약이자 노골적인 거짓말"이라며 이란은 부인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페제시키안의 외교적 노력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이란을 둘러싼 현란하게 복잡한 국제 정세는 드라마처럼 흐르고 있다.

박헌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트 검사
6. 출원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For Sale

Open House 9/21/2024 (1-4pm)

패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장 3, 2 레벨 싱글, 로빈슨하이, 495/66/395, 조지메이스 대학, 트윈부룩, 전부 업그레이드, 리모넬링, 새 지붕, 새 가전, 새 HAVC, 새 햇워러닝, 새 마루, 새 카펫(지하 방, 홀베스, 우드 fireplace) 선물, 페리오, 워크아웃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Equal Housing Opportunity REALTOR

다정한 서재

장래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추석이 지났다.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에 살다보니...



클로이리 칼럼니스트



은 자수, 돌멩이나 종잇조각, 해변에서 주운 화석 등...

그중에서도 덴마크인들의 물건에 대한 철학이 인상 깊었다. 내가 생각하는 유산은 집, 땅, 현금...

를 거쳐 일부를 시장에 내놓았다. 이 물건을 정말 필요로 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나눠야...

물건뿐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나 말, 손길, 시선, 관심 하나하나가 사람에게 남겨져 영향을 준다는...

우리 역시도 물건이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소비 내지는 취향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을 읽으면서 덴마크 가풍이 부럽기도 했다. 좋은 물건 대대손손 물려가면서 가보로 남기는...

우리말 바꾸기

식욕이 팽길까? 당길까?

다음 중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가을이 되니 식욕이 (). 팽킨다. 당긴다. 팽킨다. 당긴다. 가을은 식욕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장으로 읽는 책

가장 공적인 연애사



연애만큼 자본주의적이며 잔혹한 경쟁의 세계가 없다. ... 데이브의 모든 과정에는 돈이 든다. ... 연애 중일 때는 연인에게, 연애를 하지 않을 때는 연애를 하기 위해 돈을 쓴다.

오후 『가장 공적인 연애사』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연애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의 배분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랑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감정의 승자가 진짜 승자, 권력자다.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는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씨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장애인에게 편견 없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과연 장애인(혹은 그 육체)에게 성적으로 매혹당하고 사랑하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쓴 바 있다.

중양일보 The Korea Dail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advertisement featuring a family photo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and therapy.

Advertisement for Dr. Kim Eung-won, a specialist in spine and neurology, featuring a photo of the doctor and details about his clinic and services.

시 설

금리 인하 시작한 미국, 집값·가계빚에 고민 많은 한국

미국이 어제 새벽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최근의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린 것은 4년 반 만이다. 연내에 0.5%포인트의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도 나왔다. 유럽과 영국 등이 이어 미국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미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로금리의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미국의 기술주나 멕시코·호주 등의 고금리 자산에 투자했던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글로벌 머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지난 7월 말에도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금리 변동기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한국은행의 운신 폭이 넓어졌다. 금리 상단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줄었다. 덕분에 외환시장 걱정은 좀 덜게 됐다. 국내 이슈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한국의 금리 인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리가 내려가면 빚불린 내수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빚 부담이 여전히 골

찾거린다. 8월 서울 아파트값은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당국의 대출 죄기 여파로 최근 급등세가 한풀 꺾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가계빚이 관리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미 은행의 대출 축소에 따른 풍선효과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이 끊어지고 있다.

정책 당국은 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거시경제 운용은 종합예술이라며 시장을 관리하는 정책의 힘을 신봉한다. 내수도 살리고 집값도 안정되며 금융시장 불안도 없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알겠지만, 모든 정책에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상충관계)가 있고 다 잘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정책 우선순위를 세우고 데이터를 마지막까지 확인해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밀려드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튼튼하게 쌓는 수밖에 없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지키면서 거시경제를 잘 관리하는 것만 한 방파제는 없다는 게 그간의 위기에서 얻은 교훈이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금융 수장들의 모임인 ‘F4’에서도 금리 인하와 가계빚 관리와 관련된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란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는 건 순순간이다.

미국 0.5%P 인하 ‘빅컷’ 단행... 한국도 인하 초읽기 거시경제·금융 ‘F4’, 정책 불협화음 없도록 소통해야

민주당, 쟁점 3법 단독 통과... ‘비토크라시’ 악순환 언제까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쟁점 3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3개 법안 다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돼 ‘야당 단독 통과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이미 행사한 거부권 횟수만 21번이다. 이런 ‘비토크라시’가 뉴노멀이 된 22대 국회의 민낯이다.

민주당의 3법 강행 처리는 여러모로 무리수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가하긴 했지만, 명품백·주가조작 의혹 등 같은 골자로 여섯 번째 발의된 것이고, 채상병 특검법도 지난 국회까지 합하면 네 번째 발의다.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 4명을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거부권도 갖는 내용이라 ‘셀프 특검’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처리를 밀어붙였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4개 국정조사도 강행할 예정이다. 채상병 수사 의혹에다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방송장악 의혹, 동해 유전 의혹 등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다. 이런 강공 기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심(20일)과 위증교사 사건 결심(30일)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몰타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이어 1일엔 한동훈·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열어 모처럼 대화 모드를 만들었지만 민주당의 쟁점 3법 강행 처리로 인해 보름여 만에 물거품이 됐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동 공약 협의기구 가동도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값·물가 급등에 허리가 휘 청년·직장인과 부도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등 국회가 시급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수도룩한 상황에서, 특히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촌각을 다투는 사안인데도 가동 여부조차 불투명한 형국이다.

이 같은 체바퀴 거부권 정국을 풀려면 먼저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부터 최저치 20%로 떨어진 지지율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협치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지지도 하락은 김 여사가 명품백 수사 종료가 면죄부라든 되는 양 공개활동을 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법 논리를 따지기에 앞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만 성난 민심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도 정부에 대한 비판 민심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 반사이익만 노리면서 거부될 게 뻔한 쟁점법 강행만 되풀이한다면 수권의 길은 점점 멀어질 뿐이다.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된 영부인

김정하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민심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나. 추석 연휴였던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가 장애아동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기사를 보면서 나온 탄식이다. 명절 때 영부인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거야 정치권의 오랜 관례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벤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다. 연휴 직전인 12일 김 여사와 관련된 두 개의 뉴스가 터져나왔다.

첫째는 서울고법이 김 여사가 연루됐던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범조계에선 오래전부터 손씨 혐의가 김 여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손씨 판결이 김 여사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2심 판결로 검찰은 김 여사도 기소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됐다.

둘째는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약·시공·준공의 전 과정에 여러 불법·비위 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킨 대목에 대해 감사원은 수의계약이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2021년 영업이익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 영세업체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데 수십억원짜리 국가 핵심 보안시설 공사를 따낸 게 누구의 입김이었는지 뻔하다. 수사 당국이 이 문제들이 잡듯이 뒤지면 뭐가 더 나오지 모른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관저 이전 의혹까지 규명하자고 버든다.

이렇게 민심을 자극할 악재가 연타로 터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스레 봉사활동을 하는 영부인이라니. 국민에게 봉사의 진심이 전달되기보다 보여주는 기식 쇼만 한다는 반발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을까. 게다가 김 여사는 이미 지난 10일 ‘마포대교 시찰’로 논란을 일으킨 상태였다. 자살예방 활동이었다곤 하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세워

두고 김 여사가 손으로 지지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자 당장 시중에선 “누가 대통령이나”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인사들도 머리를 절레 절레 흔들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하려는 심산일까. 정말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명품백 문제는 법적 절차야 어찌 되든 본인의 진솔한 공개 사과가 없으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는 이슈다. 김 여사는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12월 허위 이력 논란을 직접 진화하기 위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윤석열 캠프가 여러 악재로 크게 흔들리자 김 여사가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명품백 문제와 비교하면 오히려 이력 부풀리기는 경미

홍보 사진보다 대국민 사과가 먼저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 그 약속 지켰으면 불상사 없었을 것

한 사안이었다. 김 여사는 올 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가량 빠졌다”며 명품백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를 냈다.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 무렵 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과 지지부진한 선거 캠페인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끝까지 김 여사가 사과 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김 여사는 당시 회견 때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면 오늘날 영부인이 정권의 핵심 리스크가 되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정히 사과가 힘들다면 철저히 은거하는 게 차선책이다. 아주 불가피한 필수 행사를 제외하곤 언론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 상태에서 자꾸 홍보 사진을 찍어 보자 국민

의 부아만 돋우니까 말이다.

news@joongAng.co.kr

<p>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작: 새시아이티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구금융신문, 日本經濟新聞</p>	<p>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근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C)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p>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p>
---	---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Take Out Only

CHANTILLY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KOREAN AIR
SKYPASS VISA®

워싱턴 중앙일보
창간 23rd 기념

여행을 빛내는 여행 필수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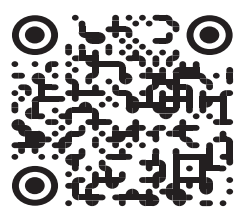
마일리지 여행의 품격을 높이는
바로 그 카드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더욱 많은 마일리지 적립과
더욱 업그레이드 된 혜택,
그리고 대한항공만의 특별함까지*

당신의 여행스타일에 맞춘 여행 필수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오늘 당신에게 맞는 카드를 신청하세요!



skypassvisa.com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SKYPASS Visa® Cards

*특정 약관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kypassvisa.com을 참조하십시오. 본 카드의 발급기관은 Visa U.S.A. Inc.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U.S. Bank National Association이며, 카드는 미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LA 관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week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Friday, September 20,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노을지는 포도밭서 와인 한잔 어때요?

테미쿨라(Temecula)
테미쿨라는 고즈넉한 와이너리와 멋진 자연 풍경을 오롯히 즐길 수 있는 남가주의 숨은 보석이다. LA에서 차로 1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는 이곳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야외 활동 및 맛집 투어까지 즐길 수 있어 특히 엔젤리노들이 사랑하는 여행지다.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일정이 그리 넉넉지 않을 때나 주말 여행을 고민 중일 때 테미쿨라 만한 선택지가 없다.

▶열기구 체험
이른 아침 일출을 배경으로 열기구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테미쿨라 포도밭을 바라보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현지에서 열기구를 운영하는 업체로는 매지컬 어드벤처(Magical Adventure Balloon Rides), 캘리포니아 드림(California Dreamin' Balloon Adventures), 그레이프 이스케이프(A Grape Escape Balloon Adventure) 등이 있는데 탑승을 위해서는 웹사이트나 전화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 가격은 1인당 175~190달러 선. 열기구 체험 후 와이너리에서 샴페인 브런치나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 패키지도 있어 추가 비용을 내고 이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꼭 열기구를 타지 않더라도 이른 아침 테미쿨라 어디서고 열기구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경험이 된다.

▶올리브오일 시음회
테미쿨라에 왔다면 올리브오일 테이스팅도 빼놓을 수 없다. 테미쿨라산



남가주 와인 산지로 유명한 테미쿨라는 유명 와이너리와 맛집 등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해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기 좋은 여행지다. [visitemeculavalley.com 캡처]



일출을 배경으로 하늘로 떠오르는 열기구들. [visitemeculavalley.com 캡처]



와이너리에서 와인 테이스팅을 즐기는 방문객들. [Peltzer Winery 인스타그램 캡처]

올리브오일은 깊은 풍미와 좋은 품질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올리브오일 농장으로는 테미쿨라 올리브오일 컴퍼니(Temecula Olive Oil Company)와 올리브 플랜테이션(Olive Plantation)이 있다. 올드 타운에 위치한 올리브오일 컴퍼니에서는 허브오일, 과일 맛 오일,

전통적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테이스팅은 무료이며 제품 구입도 가능한데 가격은 15~30달러 선. 올리브 플랜테이션에서는 직접 재배한 올리브오일을 만날 수 있으며 올리브오일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직접 볼 수 있다.

▶와이너리 투어
테미쿨라에는 40여 곳의 와이너리가 밀집해 있어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파라다이스나 다름없다. 그러나 와인 애호가 아니더라도 이곳에 왔다면 와이너리 투어를 꼭 해보자. 이주권 객원기자
▶3면 '포도밭'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강력한 전직검사
대형교통사고 전문

국제로펌 출신 부동산 매매 전문 **최고의 상법 변호사**
크리스티나 신(손) Christine E. Shin(Sohn) cshin@rowepllc.com
상법전문 인턴셔널 국제상법 / 재산증식 투자컨설팅 / 재용자 / 영의변경 / 리스협상 부동산 세들먼트 / 비즈니스 설립 전 여성경제인 협회 회장 역임 현 세계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전직검사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교통사고 민사·형사 변호사
노승훈 Robinson S. Rowe rrowe@rowepllc.com
소송전문 교통사고 / 민사소송 형사소송 / 마약 심각한 음주 운전 / 절도 / 폭행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pflores@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354.1111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한국인 전문 상담 Mrs. Lee 사무장 VA 703.887.1037 klee@rowepllc.com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턴 & 손 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at Law
www.rowepllc.com

입신양명 길 넓혔지만 줄 대야 임용 부작용도

등용문(登龍門)이란 용문에 오른다는 말이다. 중국 황하강 상류에 있는 용문이라는 곳은 물살이 세서 물고기들이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는데, 만일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등용-문'이 아니라 '등-용문'이라고 읽고, 인재를 뽑아 쓴다는 뜻을 가진 등용(登庸, 登用)과 구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등용문 하는 전통적인 길이 있었다. 바로 과거시험이다. 과거는 고려 초인 958년(광종 9년)에 처음 실시되어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무려 936년 동안 관리 선발 제도로서 기능했고, 수많은 인재에게 입신양명의 기회를 제공했다. 고려에서 시작한 일이 조선까지 이어진 것이 드문데, 과거는 그 드문 것 중 하나였다.

나랏일 하는 관리를 시험 쳐서 선발하는 것은 나름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전처럼 세습 귀족이 아니라 변변치 못한 출신이어도 자기 능력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관리가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과거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에 광종이 처음 실시했다. 당시 광종이 호족을 억압하면서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를 뽑기 위해 과거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반쪽짜리 설명이다. 신라 골품제 아래서는 신분이 따라 관리 진출이 자동 결정되었지만, 고려 건국 후 골품제가 폐지되고 더 많은 사람이 관리에 진출할 수 있게 되자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과거' 하면 으레 조선 후기의 말패를 떠올리지만, 시행 초기에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필체 가리고, 6단계 '탈진' 시험

고려의 과거는 문장 짓기를 위주로 하는 제술업과 경전 이해를 시험하는 명경업, 그리고 의학·법학·산학(算學) 등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잡업으로 구분되었는데, 이중 제술업을 으뜸으로 쳐서 으레 과거라고 하면 제술업을 가리켰다. 제술업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하는 군현에서 치는 향시(鄕試)부터 합격해야 했다. 그다음에는 자기 군현을 관할하는 대도시-계수관(界首官)이라고 했다-에 집계해서 또 한번 시험을 보고, 여기 합격하면 서울로 올라가 국가감에서 예비고사를 치렀다. 국가감시에 합격해야 예부(禮部)에서 주관하는 본시험 응시 자격이 생겼는데, 본시험은 초창·중창·종창으로 구성되어서 이것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급제했다고 했다. 향시를 시작으로 계수관시, 국가감시, 예부시 3장 등



1 고려 시대 과거 급제자에게 지급했던 합격 증서인 흥패. 고려 희종 1년(1205) 장양수에게 지급한 것이다. 2 사대부 일생의 기념일들을 그린 평생도 가운데 '삼일유가(三日遊街)', 장원급제자가 임금 이 하사한 어사화(御賜花)를 꽃고 사흘 동안 친척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3 조선 선조 9년(1576년)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이 받은 흥패. 고려 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 대신 승려들을 뽑는 승과가 있었다. 4 과거 급제자 명단을 새겨 놓은 베트남 문묘의 비석. 베트남은 중국·한국과 함께 과거제를 운영하는 나라였다.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 이익주)

무려 6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했으니, 이 좁되던 급제해서 관리가 되기 전에 탈진할 관이었다.

시험 절차가 복잡한 것은 당연히 우수한 인재가 가려 뽑기 위함이었다. 시험의 생명이랄까 할 수 있는 공정성에도 만전을 기했다. 답안지는 이름과 인적 사항을 가리고 채점했고, 필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서리(書吏)에게 답안지를 옮겨 적게 했다. 고려 말에 국가 시스템이 모두 무너지면서 과거의 공정성도 훼손되었지만, 그전까지 공정성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고려 시대 과거는 지금의 대입 수능시험만큼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였으며, 첫 시행 이후 1392년 고려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몽골과의 전쟁 중에도 피난 수도 강화도에서 빠짐없이 과거가 시행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958년부터 1392년까지 과거는 250회 실시되었고, 급제자는 총 6330명이었다(박용운, '고려 시대 응시서제와 과거제 연구'). 이들 대부분은 골품제 아래서 관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개중에는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도 있었다.

웬만한 양민은 응시 어려워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우선, 신분 제한이 있어서 천민은 응시조차 할 수 없었고, 일반 양민도 웬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도전하기 어려웠다. 생업을 돌보지 않고 기약 없는 수험생의 길로 들어서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향리 이상이 과거에 응시했으며, 실제로 그 이하 신분의 합격자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서울과 지방의 교육 여건도 확연히 달랐다.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좋은 학교가 모두 서울에 있었으므로 지방 사람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처음부터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 과거에 급제한 뒤

전쟁 나도 실시, 총 6330명 뽑아 지방·집안 차별, 공정성에 흠집

급제해도 절반 정도만 임용돼 관직 대물림 음서제는 더 심각

시험 선발 순기능, 조선이 계승 음서 없애고 무과로 영역 넓혀

에도 차별은 계속되었다. 어려운 관문을 거쳐 급제해도 모두에게 관직이 수여되지 않았다. 고려의 과거는 임용고시가 아니라 자격고시였다. 급제해서 처음 받는 관직에는 뒤에 '동정(同正)'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동정이란 '정(正)과 같다(同)'는 뜻이지만, 사실은 같지 않았다. 동정직을 받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부름을 받아서 '동정'을 떼고 다음 실직(實職, 실제 관직)을 받고 근무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급제자 중 반 정도만 실직을 받고, 나머지는 평생 동정직만 가진 채 살아야 했다는 점이다. 그럼 누가 관리로 임명되고 누구는 동정으로 놓여갔을까? 이 단계에서 가문의 배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대대로 고위 관직을 역임한 귀족 가문 자체와 지방 향리의 자제 중에 누가 유리했는지는 불문가지다.



3 조선 선조 9년(1576년)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이 받은 흥패. 고려 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 대신 승려들을 뽑는 승과가 있었다. 4 과거 급제자 명단을 새겨 놓은 베트남 문묘의 비석. 베트남은 중국·한국과 함께 과거제를 운영하는 나라였다.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 이익주)



2 사대부 일생의 기념일들을 그린 평생도 가운데 '삼일유가(三日遊街)', 장원급제자가 임금 이 하사한 어사화(御賜花)를 꽃고 사흘 동안 친척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집안 찬스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급제한 뒤 관직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동국이상국집』으로 유명한 이규보는 과거에 급제하고 7년 동안 관직을 얻지 못하자 동년(同年, 같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 조충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조영인과 장인 최선에게 관직을 부탁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가 통했는지 조·최 두 재상이 실제로 이규보를 천거했다. 『제왕운기』의 저자 이규휴도 급제 후 12년 동안 관직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관직을 구하는 구관시(求官詩)를 지어 보낸 끝에 겨우 실직을 받았다. 이색의 아버지 이곡은 급제 7년 후에 "한미한 가문과 궁벽한 마을 출신 선비는 자기 힘만으로 출세할 수 없다네. 반드시 귀한 자리에 오른 지기(知己)가 끌어당겨 주어야만 급하고 있다가 펴 수 있고 움츠리고 있다가 펴 수 있는 법이려네"라고 시작해서 구구절절 부탁하는 편지를 먼저 실직을 받은 동년들에게 썼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관직에 오르고 이름을 남길 수 있었지만, 훨씬 많은 사람이 그 어려운 과거의 관문을 뚫고도 평생 시골에서 동정직만 가진 채 살다 죽었다.

하지만 고려의 과거가 아무리 불공정하다 해도 또 하나의 등용문, 음서(蔭敍)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음서란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후손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제도였다. 예를 들어, 현직 재상은 아들·손자·생질 중 한 사람에게 정8품 동정직을 줄 수 있었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그 어렵게 얻은 종9품 동정직보다 2등급 높은 관직을 아버지·할아버지·삼촌 덕분에 거저 얻는 것이니 얼마나 큰 특혜인가. 게다가



3 조선 선조 9년(1576년)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이 받은 흥패. 고려 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 대신 승려들을 뽑는 승과가 있었다. 4 과거 급제자 명단을 새겨 놓은 베트남 문묘의 비석. 베트남은 중국·한국과 함께 과거제를 운영하는 나라였다.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 이익주)

한 번 기회에 한 사람에게 관직을 줄 수 있었지만,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아들·손자·생질 모두에게 관직을 줄 수 있었다. 음서로 동정직을 받으면 변변찮은 집안의 과거 급제자보다 실직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았고, 특히 10대 어린 나이부터 관력을 쌓아 별 탈 없으면 무난히 5품 이상으로 승진해서 다음 세대에 음서 혜택을 내려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려의 귀족들은 관직을 대개로 특권을 세웠다.

음서로 등용 후 과거 다시 치르기도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되어도 승진에는 하등 불이익이 없었다. 그런데도 고려에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음서로 쉽게 관리가 되는 것을 떴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음서로 관리가 된 뒤, 다시 과거에 도전했다. 국가에서는 관리들이 일 안 하고 과거 준비에 몰두하는 풍조를 막기 위해 6품이 되면 과거 응시를 불허했다. 그러자 6품으로 승진하게 되면 관직에서 물러나 과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신분 차이, 빈부 차이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고려에서도 집안 찬스로 출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는 기풍이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음서가 관리 충원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거의 상실했다.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고, 실제 음서로 관리가 된 사람이 고위 관직에 오른 사례도 없다. 대신 과거는 고려보다 훨씬 자주 시행되고 더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고려에는 없던 무과도 신설되어 능력 있는 무신을 선발했다. 가문의 배경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 방향이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용문에 오를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만을 앞세워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이익주 역사학자·서울시립대 교수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용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주세요.

<p>급매 \$69만 유도비리지 니븐 랜딩 상권중 방4+ 차3 차고2</p>	<p>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라빌 \$3,500 방3+/화3 차고 1</p>	<p>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p>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르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 신제품 세종 후코펫

-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 GMP 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 효과, 면역력 증대, 체질개선 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 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 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해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세종바이오텍 **703-256-7671**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시대 굴곡따라 '무용지용'... 세계 유일 '기장 짬불 쫄면'

(無用之用· 쓸모 없는 것의 쓸모 있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맛있다. 타지를 여행하는 방법 중 최고는 현지인의 안내를 받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연으로 모인 인문학자 14명이 부산의 맛과 역사를 재밌게 풀어낸 책 『부산미각』을 출간했다. 대부분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저자들은 돼지국밥부터 쫄면까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밥상을 중심으로 부산이라는 도시가 품은 방대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엮었다.

책을 기획한 최진아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부산은 융합이 계속 이루어지는 독특한 지역”이라며 “모든 것을 한데 넣고 끓여내는 커다란 가마솥 같기에 가마솥 부(釜)를 쓴 지명처럼 대륙과 해양을 통 크게 품고 있다”고 했다. 김경아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양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과 한국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밀려든 피란민의 생존의 역사가 현재 부산의 문화와 미각을 만들어 낸 두 개의 축”이라고 했다.

잡힌 고등어 80% 모이는 부산서 고갈비 탄생
무용지용(無用之用). “사람들이 쓸모 없음을 쓸모는 잘 알고 있으나 쓸모 없음을 쓸모는 알지 못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없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니 쓸모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쓸모 있음이 어찌 쓸모 있었는가”라고 한 장자의 말이다. 책에서 ‘쫄면’ 편을 쓴 나도원 부산대 중어중문학과 강의교수는 “쫄면어처럼 역사와 시대의 굴곡을 따라 쓸모 있고 없고를 반복한 물고기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쫄면어의 껍질만 가져다 나막신 끈, 모자 테두리 등을 만드는 데 썼다. 쓸모 없는 고기는 버려졌고 이를 배고픈 한국인이 가져다 구워 먹었던 게 쫄면어 구이의 시초다. 나 교수는 “일본 패망 후에는 쫄

책으로 정리한 부산 향토음식

해양도시 특성과 피란민 역사가 현재 부산 문화·미각 만든 두 축

‘부산 돼지국밥’의 부산스러움은 쉐 양념 ‘정구지’ 곁들이면 나와

장어 껍질보다 고기가 더 쓸모 있어졌다”며 “춘공기에 쫄면어를 짬불에 던져 구워 먹으며 굽주림을 해결했던 게 오늘날 ‘기장 짬불 쫄면어’인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산만의 독특한 음식”이라고 했다. 비행기와 땅 위의 탁자와 의자 빼고는 다 먹는다는 중국 사람들도 쫄면어는 못 먹는다. 나 교수는 “부산 사람들이 말투도 세고 거칠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속정 많은 사람들이다. 억척같이 살아내기 위해 거친 생활력으로 버텨온 뿐”이라며 “윗세대가 어떤 마음으로 쫄면어를 먹었겠나 생각하면 안타깝고,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반복하며 버틴 쫄면어를 보면 한국전쟁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체에서 소외당한 부산과 참 닮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인 ‘돼지국밥’ 이야기도 지난한 부산의 역사와 닮았다. 고혜림 부산대 평생교육원 강의교수는 “광복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값싸고 양 많은 식재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간절함이 돼지국밥을 탄생시켰다”며 “부산 토박이들에게 물어도 ‘부산 돼지국밥’ 맛을



1아궁이에 짬불을 붙이고 쫄면어를 굽는 기장 '짬불 쫄면어 구이'. 새끼망개 탄 쪼뚝기를 벗겨내면 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이것을 철판 위에 올려 따뜻하게 덥혀 먹으면 별미다. 2 『부산미각』 표지. 송봉근 기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전국의 돼지음식이 부산에 모여 ‘부산 돼지국밥’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도 ‘부산스러움’을 짚는다면 간을 거의 안한 국물에 쉐 양념으로 무친 정구지(부추의 부산 사투리)를 넣어 각자의 입맛에 딱 맞게 국물 맛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닐까. 고 교수는 “부추는 20대에 처음 들은 말(웃음)”이라며 “정구지(精久持)의 한자가 ‘오랫동안 부부간의 정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남자들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새벽 배송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재첩국’ 아지매들의 1980년대 모습. ‘재첩국 사이소’를 외치던 정겨운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사진 사하구청]

고기 국물이나 채소와 함께 영양소 균형을 유지하려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뚝배기처럼 둥근 하다는 표현은 달아오르는 데 오래 걸리지만, 식는 것도 오래 걸려서 따뜻한 이 오래 간다는 말”이라며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도 뚝배기 같아서 돼지국밥은 여러 모로 부산 사람들의 정체성과 맞아 있다”고 했다.

『부산미각』을 읽는 또 다른 재미는 한·중·일 식문화의 비교다. 한자로 된 옛 문헌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저자들은 동일한 재료가 부산에서는 중국·일본과 다르게 활용되고, 또 중국·일본을 통해 유입돼 새로운 미각으로 탄생한 부산 음식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한다.

중국은 완탕, 일본은 완탕, 한국은 완탕
일종의 만둣국인 ‘훈툰’을 중국 광둥 지역에서 ‘완탕’이라 불렀는데, 완탕이 일본으로 전해져 ‘완탕’이 되고, 부산으로 들어와 ‘완탕’이 됐다”는 이

야기 등이다. ‘완탕’은 돼지 사골, 말린 새우, 생선 등 다양한 식재료로 국물 맛을 내고 ‘완탕’은 주로 닭고기만 진한 국물을 내는데 반해 부산의 ‘완탕’은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우려낸다는 점도 재밌다. 음식을 통해 한·중·일이 어떻게 각자의 문화를 융합·창조해 왔는지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

부산을 새롭게 발견하는 맛도 쏠쏠하다. 우리나라 인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 중 80% 이상은 부산공동어시장을 거친 뒤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고갈비’의 시작도 부산이다. 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갯물지역 갈대숲에선 5월이면 “우웅~”하고 우는 ‘웅어’가 잡히고, ‘동래과전’은 대합·오징어 같은 해산물과 소고기를 섞고 계란 물까지 얹은 육·해·공 집합체라는 것, 계란 프라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산 간짜장 이야기 등은 읽을 수록 빠져든다.

지난 2월 『미쉐린 가이드 부산』이 처음 발표되고 큰 화제가 됐지만, 정작 부산 사람들은 “부산의 특색이 전혀 없는 리스트”라며 불만이 많다. 돼지국밥이나 밀면처럼 부산의 전 향토 음식보다 초밥·파스타 등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 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산미각』과 저자들의 노력은 귀하다. 요즘처럼 로컬 컬처가 중요한 때, 지역 문화 콘텐츠를 인문학과 함께 이렇게 정성스럽고 맛깔스럽게 소개한 책은 드물다. “재첩국 사이소”를 외치며 새벽을 열던 아지매들처럼 이미 사라진 풍경을, 어쩌면 앞으로 사라질 지 모를 현장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록한 책도 없다. 무엇보다 부산으로 가고 싶게 만든다.

부산=서정민 기자

1면 ‘포도밭’에서 이어집니다

테미쿨라의 대표적인 와이너리로는 윌슨크릭(Wilson Creek), 폰자넬라(Fonzanella), 사우스코스트(South Coast) 와이너리 등이 있다. 또 스파클링 와인을 전문으로 하는 카터 에스테이트(Carter Estate), 푸드트릭과 라이브 음악으로 유명한 아카쉬(Akash) 등도 방문해볼 만하다. 만약 딱 한 곳의 와이너리만 방문

문해야 한다면 캘러웨이 와이너리(Callaway)를 고려해 보길. 1969년 설립된 테미쿨라의 대표 와이너리인 이곳은 아름다운 포도밭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핫플로 알려져 있다. 와이너리 내부에는 시음실과 넓은 테라스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와인을 즐기며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쇼비닝 블랑과 드라이 로제가 시그니처 와인이며 테이스팅에는 치즈 플레이터와 핑거

푸드가 제공된다.

▶올드타운

테미쿨라 여행에 있어 올드타운을 빼놓을 수 없다. 올드타운은 180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서부 개척 시대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걷다 보면 유서 깊은 건물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초기 정착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또 공예품과 앤

티크 전문 숯 등 아기자기한 상품들이 즐비해 거리 구경만으로도 즐거운 곳이다. 이곳에서 맛집 투어도 빼놓을 수 없다.

올드타운 식당에선 전통적인 미국 요리부터 이탈리아, 멕시코 퀴진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이중 가장 유명한 식당은 ‘1909 테미쿨라’로 역사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어 오래된 남가주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바이슨 버거(Bison Burger)가 이곳

인기 메뉴이며 메뉴 가격은 15~25달러 사이로 가볍게 점심 식사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 신선한 로컬 식재료로 만든 피자 와 수제 빵이 유명한 ‘고트 앤 바인(The Goat and Vine)’도 들러볼 만하다. 이곳 인기 메뉴는 염소 치즈, 리코타 크림소스, 선드라이 토마토소스로 만든 고트 가든(Goat Garden) 피자. 대부분 피자 메뉴 가격은 23~29달러 선이다.

이주현 객원기자

빌페이지 토요타 Cool 세일

매일 [딜러 스페셜] 할인차량이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 문의 주세요!

2025 캠리 혁신적인 연비, 새로운 스타일 지금 확인하세요!

다양한 할인보장

스페셜 이자

15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프리미엄 대상 수상

"문제 없습니다!"

- 크레딧 문제 있으신분
- Bankruptcy 하신 분
- Foreclosure 하신 분
-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

코롤라크로스



랩포



벤자



하이랜더



포러너



랜드크루저



[중고차 특선 세일]

페이지 토요타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다량의 중고차 보유]

*원하시는 예산과 스타일의 중고차를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찾아 드립니다!

 2009 Scion XD 5-Door Sale Price \$7,200 Mileage: 101,332 Stock#: 84046A	 2010 Honda CR-V LX Sale Price \$9,100 Mileage: 132,091 Stock#: P7796A	 2010 Lexus ES 350 Sale Price \$9,550 Mileage: 142,662 Stock#: P7860A	 2012 Toyota Prius Two Sale Price \$10,394 Mileage: 104,764 Stock#: 84019A	 2015 Toyota Prius v Three Sale Price \$11,730 Mileage: 132,323 Stock#: P7952	 2021 Toyota Corolla LE Sale Price \$18,795 Mileage: 60,814 Stock#: P7940	 2021 Toyota C-HR LE Sale Price \$24,300 Mileage: 24,698 Stock#: P7933	 2022 Toyota Corolla Cross LE AWD Sale Price \$25,911 Mileage: 26,042 Stock#: P7821	 2023 Toyota Venza LE Sale Price \$29,541 Mileage: 48,838 Stock#: P7823	 2021 Toyota Tacoma SR 4x4 Double Cab Sale Price \$32,995 Mileage: 16,808 Stock#: P7953
---	---	--	---	---	--	---	--	--	--

Uber | Lyft

우버/리프트 운영자분 도와 드립니다!
\$750 리베이트 (딜러에 문의 주세요!)

텍스 아이디로도 낮은 이자율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높은 이자율로 고민하시거나, 메이먼트 부담으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을 빌페이지 토요타가 도와드립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스페셜 프로그램 지급 확인하세요!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한인세일즈

김 광수
301.401.8685

매니징팀

제네랄 매니저 **차니 김**
세일즈 매니저 **손 박**
파이낸스 디렉터 **잔 조**

Billpage Toyota | Annandale Rd. | Arlington Blvd. | 50번가 | 매년데일에서 10분거리!

Bill Page TOYOTA
703.532.8800
2923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Sales Hours M-F 9am ~ 9pm Sat 9am ~ 8pm / Sun 11am ~ 6pm

*Price includes applicable current manufacturer rebates. Additional factory rebates such as instant dealer incentive or delivery may be available. All vehicles are subject to price code. All prices are special internet prices only and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ffer, public or private. All financing is subject to approved credit. All new vehicle prices include freight, tax, title and processing fee of \$798. We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but please verify options and price before purchasing. Bill Page Toyota Store can not be held liable for data that is listed incorrectly, amounts for third party payment through 3rd party subject approved credit. See dealer for details.

너무 추워 잠 설쳤다, 더울 때 즐긴 '북극'

핀란드·노르웨이 북극권 여행
한낮에도 기온 10도, 외투 입어야
핀란드식 사우나 뒤편 강물 입수
150cm 10kg 넘는 키크랩은 별미
눈 얼려 만든 호텔은 영하 2~3도
얼음침대에서 자고 또 사우나 직행

허구한 날 열대야로 잠을 설쳤던 8월 하순, 도저히 잠을 수가 없어 가방을 꾸렸다. 지구촌 전체가 쨍쨍 끓었던 여름 이어서 피서 기분을 내려면 멀리, 아주 멀리 도망쳐야 했다. 그렇게 북극권 여행이 시작됐다. 북위 70도 언저리에 걸친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북쪽 지역을 찾아 들어갔다. 유럽 북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도 북쪽 끄트머리에 붙은 오지 마을에서 비로소 징글징글했던 여름과 작별했다. 낮에는 긴팔옷 꺼내고 툰드라 초원을 거닐었고, 밤에는 방한 장비로 무장한 채 눈으로 지은 호텔에 몸을 누였다. 스노 호텔 얼음 침대에서 잠을 청하다가 새삼 인간은 간사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 더위에 잠을 설쳤던 동양의 여행자는 그 밤 너무 추워서 잠을 설쳤다.

8월의 오로라
비행기를 두 번 타고 들어간 핀란드 북부 내륙도시 이발로(Ivalo)는 우리의 경북 영양이나 봉화처럼 꼭꼭 숨은 두메다. 위도를 찾아보니 68.66도. 아주 오랜만에 북극권에 들어왔다.

북극권(Arctic Circle)은 북쪽 지역을 통칭하는 일반명사가 아니다. 북위 66.33도 이상 지역을 뜻하는 기상용어다. 하여 여름의 북극권은 좀처럼 해가지지 않는다. 하지가 한참 지난 8월 말이었는데도 이발로의 하늘은 오후 10시가 넘어야 어두워졌고 새벽 2시가 넘어가자 희미해졌다. 이발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행동은 외투를 꺼내 입은 일이었다. 한낮이어서도 10도 정도였다.

소나무와 자작나무로 빼빼한 숲 한 가운데 호텔이 있었다. 월터니스 호텔 무오트카(Wilderness Hotel Muotka). 이름에 '야생(Wilderness)'이 들어간



노르웨이 동북단의 갯마을 뷰고니스. 작고 아름다운 북유럽의 마을이다. 해안 너머에 있는 바다가 북극해와 맞닿은 베린츠해다.

호텔이어서 객실이 모두 오두막이었다. 그런데 하나같이 천정이 유리로 돼 있었다. 바깥에서 침대가 흰히 보였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했는데, 세상에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침대에 누워 오로라를 보다가 잠드는 호텔이라니.

실제로 첫날 밤 오로라가 나왔다. 아니 나왔다고 한다. 새벽 1시쯤 오로라가 떴었다고 이튿날 아침 호텔 직원이 사진을 보여주며 으쓱거렸다. 8월의 오로라라. 북극권에서도 겨울에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이발로에서는 해가 없고 구름도 없으면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정이 안 돼 풀아떨어진 동양의 여행자는 8월의 오로라는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예, 잠결에 너무 환하다 싶었다.

핀란드는 역시 사우나의 나라였다. 호텔은 물론이고 식당도 사우나를 두고 있었다. 핀란드 여행 책자를 보니 인구 540만명의 나라에 300만 개가 넘는 사우나가 있다. 사우나(Sauna)는 핀란드어다. 핀란드 현지 여행사 '라플란드 노스'의 한나 코우리 대표가 "사우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핀란드어"

라고 말했다.

찜질방을 사랑하는 한국의 여행자도 핀란드 사우나를 즐겼다. 뜨겁게 달군 돌무더기에 물을 끼얹어 증기욕을 즐기는 방식이 불가마를 통째로 달구는 한국식과는 달랐지만, 개운해지는 기분은 같았다. 사우나 온도는 80도에 육박했다.

사우나에서 생잎 달린 자작나무 가

지로 제 몸을 때리는 체험은 분명 색달랐다. 그 유명한 감에 들어가는 자작나무가 몸에 뻘 나쁜 성분을 빼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효과는 모르겠고 재미는 있었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사우나에서 달궈진 몸을 강물에 뛰어들어 식히는 순서였다. 겨울이 아니어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툰드라 초원을 흐르는 강물은 8월에도 충분히 차가웠다.

눈으로 지은 호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국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해외여행에 당연히 요구되는 출국과 입국 절차가 유럽연합(EU)으로 통합된 국가의 국경을 넘을 때는 통째로 삭제된다. 그 귀찮고 성가신, 때로는 약간의 긴장감마저 불러일으키는 의식에서 해방된다는 것만으로도 유럽 여행은 한국의 여행자를 들뜨게 한다. 여정 사흘째, 이발로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쯤 지났으려나. 차창 밖 풍경은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1시간이 뒤로 갔다. 노르웨이로 넘어온 것이다. 노르웨이가 핀란드보다 1시간 늦다.

노르웨이 동북단의 갯마을 뷰고니스(Bugones)에 도착했다. 핀란드 위쪽

이어서 위도가 더 올라 북위 70도에도 달했다. 뷰고니스에서 보이는 바다가 북극해와 맞닿은 베린츠해다. 뷰고니스 아랫마을 시르케네스(Kirkenes)는 러시아 국경 마을이다. 보트를 타고 피오르(fjord)를 따라 러시아 국경까지 다가갔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아니어서 국경을 표시했다. 그렇다고 철책이 있는 건 아니었다. 2m쯤 거리를 두고 돌기둥 2개가 서 있었다. 이쪽 기둥이 노르웨이, 저쪽 기둥이 러시아, 기둥 사이는 우리식으로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에서 두어 발짝 더 떼 국경을 넘어볼까 했는데, 가이드가 질책하고 말했다. CCTV가 있어 무단으로 국경을 넘으면 나중에 벌금을 물린단다. 이 바다에서 키크랩이 올라온다. 원래 키크랩은 러시아 동부 해안에서만 낚았는데, 1970년대 러시아가 서부 해안에서 양식에 성공한 이래 국경 너머 노르웨이 바다에서도 키크랩이 나온단다. 노르웨이 키크랩은 서울에서 먹었던 녀석보다 훨씬 컸다. 집게 다리를 펼 길이는 1m50cm나 됐고, 무게는 10kg이 넘었다. 놀랍게도 아니 아쉽게도, 노르웨이 사람은 키크랩을 다리만 먹었다. 다리는 잘라내 찌고 몸통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키크랩이 워낙 커서 다리 서너 개만 먹어도 배가 불렀다.

북극권으로 떠난 피서 마지막 밤. 마침내 스노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다. 스노 호텔 시르케네스는 유럽에서 하나뿐인 여름에도 문을 여는 스노 호텔이다. 여름에도 호텔을 열기 위해 겨울마다 25t의 얼음과 15000㎡의 눈을 비축한다. 호텔에 입장하기 전, 프런트 직원이 칫솔 대신 칫낭을 줬다. 호텔 안은 이글루 같았다. 눈을 얼려 호텔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호텔 온도는 영하 2~3도. 객실에는 얼음을 깎아 만든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얼음 침대에 눕기 전 아이스바에서 얼음 잔에 위스키를 따라 연거푸 마셨다. 체온을 한껏 올리고 침대에 들어갔지만,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입김이 새어 나왔다. 이튿날 눈 뜨자마자 사우나로 달려갔다. 밤새 추위로 굳은 몸이 비로소 풀렸다.

핀란드·노르웨이=글 사진 손민호 기자



1 북유럽의 순록은 우리의 소와 같다. 고기부터 가죽, 뿔까지 버릴 게 없다. 2 핀란드 이발로 한 호텔의 객실. 침대에 누워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도록 천정에 유리를 설치했다. 3 노르웨이 스노 호텔의 객실. 얼음을 깎아 침대를 만들었다. 4 노르웨이 시르케네스에서 키크랩 사파리 체험을 할 수 있다. 키크랩이 한국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크다. 5 핀란드 소나무 숲. 초원이 체리로 가득하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Periodontal Surgery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원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Veneer Lumineers Root Canal Treatment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루테 쇼펍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무부양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인비절라인 자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DC 건물 | 쇼핑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 Costar 선정 Top Power Broker
- Marcus & Millichap 근무경력
- Shopping Center 투자/관리 경력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셸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최근에 매매한 상용건물들이 실력을 증명합니다!

SOLD Popeyes \$2.5M VA. 세로지은 NNN 건물	SOLD Starbucks \$2.9M VA. NNN 건물, Drive-Thru	SOLD Chick-fil-A \$3.8M NNN 건물, Drive-Thru	SOLD Days Inn \$3.7M Days Inn, WM Co. 72 Rooms
SOLD Ruby Tuesday \$2.5M VA. NNN 건물	SOLD VA 창고 \$6.8M VA Industrial Flex	SOLD MD 아파트 \$2.2M MD Silver Spring	SOLD MD 창고 \$4.1M MD Hyattsville
SOLD DC 아파트 \$1.5M DC NW. Metro 상권, 5 유닛	SOLD DC 창고 \$2.5M DC. NoMa Metro 상권	SOLD DC 쇼핑센터 \$2.4M DC. Capital Hill 지역	SOLD DC 쇼핑센터 \$4.5M Popeyes 테넌트, 연인컴 \$32만
SOLD DC 단독건물 \$1.2M Benning Rd. 개발지역	SOLD DC Mixed-Use \$1.5M Capital Hill 지역 Retail /아파트	SOLD DC Mixed-Use \$1.5M Georgetown Retail /아파트	SOLD DC 창고 \$5.8M 56,000 S/F Warehouse

FEATURED LISTING

VA Merrifield 창고 \$1.4M Warehouse / Industrial 3,600 SF FX 최상의 위치 - Mosaic District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쇼룸, 리테일	DC 3 유닛 주상복합 \$1.8M NW Columbia Metro 상권 1층 Beer & Wine 테넌트 2층, 3층 방3개 Apartments	Starbucks 쇼핑센터 \$2.2M Starbucks / Deli 테넌트 3,200 SF PA, Rockville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식당 / Deli
---	---	--



VA OFFICE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DC OFFICE 4400 MacArthur Blvd Washington, DC 20007



“소름 끼치는 무대다. 엄청난 연습량이 느껴진다.”(이은미),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는데, 감동받았다.”(배철수), “네분의 무기가 다 다르다. 매번 너무 잘해 알았다.”(최정원)

올 상반기 KBS2 ‘불후의 명곡’에서 5차례 우승한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박기훈·유재훈·정민성·최성훈)에게 선배 가수들이 보낸 극찬이다. 라포엠은올 초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아이브 ‘아이엠’, 스트레이키즈 ‘락’, 세븐틴 ‘손오공’ 등 K팝 메들리 무대로, 삼일절 기념식에선 독립 영웅들께 전하는 ‘나의 영웅’으로 화제를 모았다. 조수미의 ‘챔피언스’(KBS 파리에올림픽 특집 ‘파리의 영웅들’), 정훈희와의 ‘안개’(제43회 청룡영화제) 등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온 이들의 하모니가 올가을 미국에서 울려 퍼진다.

다음 달 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50주년 기념 콘서트’로 첫 미국투어 ‘라포엠 2024 USA’를 시작한다. 9일 텍사스 코펠 아트센터에서 공연하고, 12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중앙일보 창간 50주년 기념 LA 콘서트’를 연다. 이어 26·27일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단독콘서트 ‘라포엠 심포니’가 예정돼 있다.

2020년 JTBC ‘팬텀싱어3’ 우승자인 라포엠은 장르를 넘나들며 카멜레온 음색을 뽐낸다. 국내 최고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창작 가곡 앨범 ‘시·詩·POEM’을 발매했고, 올 4월엔 이지리싱싱 팝을 표방한 싱글 ‘미로’로 대중과 교감하며, 버스 실시간 차트 1, 2위를 휩쓸었다. 전공인 성악을 기반으로 클래식·가요·팝을 넘나들어 ‘성악 어벤져스’로도 불린다. 최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에서 만난 라포엠은 “공연은 언제나 설렌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드릴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 지난 4년간 활동 소감은.
“지나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 나를

K-크로스오버 열풍 만든다 성악 어벤져스 첫 미국 투어



카멜레온 음색을 뽐내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 다음 달 미국 투어에 나선다. 왼쪽부터 최성훈·박기훈·정민성·유재훈.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대로 노력하고 연구해가며 발전했다고 생각한다.”(최성훈) “내게 가장 치열했던 4년이였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가면서 내면까지 바꿨던 소중한 시간이었다.”(정민성)

—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올 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골든디스크 무대다. 5만 관객이 내는 응원 소리를 처음 느껴봤다.”(정민성)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팬텀싱어3’

갈라 콘서트가 기억에 남는다. 마스크를 착용한 관객의 눈동자가 잊히지 않는다.”(유재훈) “‘팬텀싱어3’ 결승 무대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최성훈) “2022년 콘서트에서 마이클 잭슨 춤을 칠 때 많은 것을 깨달았다. 추고 나서도 걱정했던 무대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심란하다.”(박기훈)

— 라포엠 결성하길 잘했다고 느낄 때는.

“공연 합주에서 ‘왜 우승했는지 알겠어요’라는 칭찬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팀워크도 단단해진다.”(박기훈) “라포엠을 통해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도 많았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정말 감사하다.”(유재훈)

— 팀워크의 비결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다. 모두 성악 전공자여서 그런지 피아노 한 대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모여 노래하면서 논다.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 참 좋다.”(박기훈)

— 매번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데.

“변화무쌍한 필모그래피를 만드는 재미가 있다. 클래식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다.”(유재훈) “네 멤버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르가 섞인다. 우리 또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한다고 생각한다.”(최성훈)

— 라포엠의 꿈은.

“‘크로스오버 1세대’ 일 디보 같은 그룹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일 디보 내한공연에서 스페인어 노래를 한국 관객이 떴창하더라. 소름이 돋았다. 라포엠의 음악도 자연스럽게 즐겨주시길 바란다.”(유재훈) “변화무쌍한 음색을 가진 팀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미국 공연에선 그룹과 개인 무대로 우리의 장점을 보여드릴 예정이다. 여러 나라 팬들을 만나고 싶다.”(정민성)

황지영 기자

‘키펴드 영상’ 올렸다 아차차... 린가드 “면허 필요한지 몰랐어요”

(FC서울 선수)

프로축구 FC서울이 한가위 연휴 기간 간판스타 제시 린가드(32)가 일컫는 ‘전통 키펴드 해프닝’으로 가슴을 쓸 어내렸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전통 키펴드를 타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국내법상 전통 키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린가드는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린가드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린가드는 법

규 위반을 인지한 듯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하루 뒤인 17일에는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린가드는 “전통 키펴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운전했던 게 맞다.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규정이 없어 면허와 헬멧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황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추가적인 잘못이 없다면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FC서울은 “린가드가 한국을 방문 중인 어머니·여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길을 건다 호기심에 전통 키펴드를 타본 것”이라면서 “음주 등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린가드는 K리그 무대에 진출한 외국인 선수 중 역대 최고 스타로 평가받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잉글랜드 대표팀 멤버로 러시아월드컵 본선을 포함해 A매치에 32경기(6골)나 출전했다.

지난해 6월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와의 계약 종료 이후 반년 가까이 새 소속 팀을 찾지 못하던 린가드는 지난 2월 유럽 명문 클럽들의 러브콜을 마다하고 FC서울을 선택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린가드는 최근 방송인 유재석이 진

행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 관계자들이 내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영국 맨체스터까지 찾아왔다. 전화와 이메일로 접촉했던 다른 팀과는 달랐다. 그 성의에 감동해 서울행을 결심한 것”이라 털어놨다.

린가드는 올 시즌 K리그1 18경기에서 4골을 기록 중이다. 준수한 테크닉과 볼 키펴 능력을 선보이며 프로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린가드의 활약을 앞세운 서울은 올 시즌 15차례 홈 경기에서 총 40만3389명의 관중을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2만6893명이다.

김기동 서울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시절엔 악동 이미지도 있어 처음엔 걱정



프로축구 FC서울 제시 린가드가 지난 16일 올린 전통 키펴드 운전 영상. 무면허 운전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날 사과했다.

(뉴스1)

했는데 입단 이후 보여준 모습은 프로페셔널리즘 그 자체”라면서 “서울의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다는 의욕이 대단하다. 전통 키펴드 해프닝이 시즌 막판 집중력을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1.9%	42.9%	2.3%	0.0%
매우중증	중증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북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영치 포리베 좌골신경통

sciatca

엄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피곤함

발목 펴기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힘이 없어 집지 못함

핑아치

피지지 않음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일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물식품 추석 맞이 특판 행사

전라남도와 전남 중소기업진흥원, 롯데플라자가 주관하는 이번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물식품 추석맞이 판촉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MD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VA 애난데일 롯데플라자

9/19 (목) ~ 9/23 (월)

880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 750-9656

9/26 (목) ~ 9/30 (월)

5204 Port Royal, Springfield, VA 20151

(571) 419-6954

* 마지막날 월요일은 첫갈류 등 특가 세일 합니다!



특가 세일 실시

- 영광 법성포 보리굴비 (대) 10마리
- 영광 법성포 보리굴비 (중) 10마리
- 영광 법성포 굴비 2.1kg/20마리
- 영광 법성포 (찐)보리굴비 1마리

농특산물

전통식물인 모시송편, 대봉곶감, 순 한국산 생들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전통고추장 및 된장, 창평엿, 청국장, 낫토청국장, 메주가루, 엿기름, 유과, 유기농현미, 동충하초, 상황버섯, 찹쌀약과, 감자떡, 누룽지(현미, 보리, 귀리, 오곡, 가마솥), 보성농협잡곡(청자초, 흑미, 찰수수, 찰기장, 서리태, 울무, 할매, 입매, 찰흑미, 발아현미, 흑보리), 매실고추장, 수제부각 (김, 다시마, 카레, 스파이시), 건토란대, 건도라지, 건고구마순, 건무청시래기 등

건어물 / 수산

영광법성포굴비와 보리굴비, 굴비고추장, 냉동전복, 여수서대, 여수꼬막, 갈치포, 곰창김, 재래김, 청태김, 청각, 밥지어먹는 톳, 꼬시래기, 완도미역 및 다시마, 매생이, 숙어홍어, 장죽, 가문어살, 건홍합, 멸치, 양태재, 장어포, 건오징어, 염장곰피 등

젓갈류

명란젓, 창란젓, 토하젓, 오징어젓, 조개젓, 참새우젓, 황석어젓, 갈치속젓, 전어고추, 가자미식혜, 벤딩이젓, 생더덕무침, 된장깻잎, 고추무침, 고들빼기, 갓김치, 쪽파김치, 울외주박장아찌, 멧게젓 등의 전라도 웰빙 젓갈 반찬류

약재류/ 건강식품

도라지, 감초, 대추, 천궁, 결명자, 산수유, 개똥썩, 느릅나무, 당귀, 어성초, 야간문, 헛개나무, 겨우살이, 황기, 구기자, 홍화씨, 삼백초, 맥문동 등 순수 한국재료로만 만들어진 약재류

*약재류는 물론 모든 제품이 새롭게 입하, 판매됩니다.

*일부 제품은 통관 상황에 따라 누락될 수 있으며, 또한 판매 상황에 따라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 방문해 주세요.

주관 :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주최 : **LOTTE Plaza** 푸드코리아(주), Korepia Corp.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Charlie: Oooh! That pizza was great!
찰리: 이야! 피자맛 좋네!
Annie: Yes it was, honey. It hit the spot.
애니: 정말 그래요 여보! 정말 맛있었어요.
Daniel: The cheese was delicious.
대니얼: 치즈도 맛있어요.
Katie: There's one piece left. Who wants it?
케이타: 한 조각 남았네. 누구 드실 분?
Annie: Why don't you and Daniel split it?

애니: 너하고 대니얼하고 반씩 나눠 먹을까?
Katie: Okay.
케이타: 좋아요.
Daniel: I can't eat anymore. I'm stuffed.
대니얼: 난 더 못먹겠어. 배불러.
Katie: Actually I'm full too.
케이타: 사실은 나도 배불러.
Charlie: You can have it tomorrow for lunch.
찰리: 내일 점심 때 먹어도 되겠다.

Annie: Okay who's going to help me do the dishes?
애니: 자 설거지 할 건데 누가 도와줄래요?

기억할만한 표현

▶ split it (or something): (무엇을) 다른 사람과 나누다.
"I'm not very hungry. Do you want to split a salad?" (저는 배가 아주 고프지 않습니다. 샐러드를 나눠 먹

을까요?)
▶ (one) is stuffed: (누가) 배가 부르다. (I'm full과 같은 뜻)
"I'm stuffed. I can't even eat dessert." (전 배가 부릅니다. 후식은 못 먹겠는데요.)
▶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After I do the dishes I'm going to read a book and then go to bed." (난 설거지 끝내고 책을 읽다가 자겠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2)마을이나 도시를 품고 있는 산. 북한산은 서울의 ~이다 (4)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7)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올. 용맹하고 성급한 성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 (8)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함. 무엇이든 정성껏 하면 하늘이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맺음 (9)도할 듯 메스꺼운 느낌 (11)사람의 몸에서 허리 위의 부분 (13)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 (14)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못. 칼데라호인 ~ 돌레에는 장군봉을 비롯한 화구벽 오봉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15)부모가 낳은 아이. ~ 이기는 부모 없다 (16)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18)조롱박이나 둥근 박을 반으로 쪼개어 만든 작은 바가지 (20)돈을 지키는 노예.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는, 매우 인색한 사람 (22)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 □승□□ (24)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곱.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 (26)바퀴를 달아서 굴러가게 만든 기구 (27)동물이나 무생물을 의인화하여 꾸며낸 짧은 이야기. 이솝 ~

세로열쇠

(1)맹인 여럿이 코끼리를 만짐(무). 모든 사물을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릇되게 판단함. 군□□□ (2)앞으로 나아감. 어떤 방향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감 (3)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숲 속을 걷거나 머물러 있는 일 (4)부녀자들이 걸치마가 부풀어오르게 보이려고 치마 속에 입던 통치마 (5)울고 그름에 관계없이 한쪽만을 편들어 감싸 주는 일. 형과 싸우면 어머니는 이유도 묻지 않고 형 ~만 드셨다 (6)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 청□□□ (10)손가락 따위로 누르거나 주물러서 신경을 자극하여 피의 순환을 순조롭게 하는 민간요법 (12)새로운 세상 (13)이름, 군번, 혈액형 따위를 새긴 타원형의 얇은 쇠붙이 (16)덧셈·뺄셈·곱셈·나눗셈. □감□□ (17)소금을 만들기 위하여 바닷물을 끓여 들여 눈처럼 만든 곳 (19)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20)쇠가죽에서 벗겨 낸 질긴 고기 (21)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 비결 (23)오래 삶 (25)굴. 여름에는 먹지 않고, 추울수록 맛이 있죠

스도쿠

				2		4	1	
8						6		
			3	6	5		9	
			8	4		6		7
2	7	9						6
6	1				7			
7					2			
4	6						8	2
	8			3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9	2	4	3	1	2	8	6
2	8	3	6	2	5	1	9	4
4	6	1	2	9	8	5	3	7
6	3	5	7	8	2	4	1	9
9	4	8	5	1	3	6	7	2
1	2	2	9	6	4	8	5	3
2	2	6	8	5	9	3	4	1
3	5	9	1	4	6	7	2	8
8	1	4	3	2	2	9	6	5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미 동부 위싱턴 지역
토박이 한인마켓!
롯데플라자마켓

LOTTE PLAZA market

VA & MD Weekly Sale: SEP. 20 FRI - SEP. 26 THU, 2024
 FRI 20 SAT 21 SUN 22 MON 23 TUE 24 WED 25 THU 26
 *심바스프링과 한인 매장은 본 세일 광고에서 제외된 품을 알려드립니다.
 www.lotteplaza.com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주간 세일 및 이벤트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원황배 (9-10과)
Korean Pear (9~10's)
2899
BOX

라고포도
Lago Grape
1299
BOX

썬골드 골든 키위
Sungold Golden Kiwi
1999
BOX

백도
White Peach
149
LB

로메인 하트
Romaine Heart
199
PK

양송이 버섯
White Cello Mushroom
099
PK

거봉
Sneaded Kyoho Grape
599
PK

만다린(밀감)
Mandarin
149
LB

검은 자두
Black Plum
399
BAG

실란트로
Cilantro
4BN for 100

유기농 생강
Organic Ginger
179
LB

무지개 피망
Rainbow Pepper
299
PK

보라색 고구마
Purple Sweet Potato
149
LB

씨없는 수박
Seedless Watermelon
499
EA

흰용과
White Dragon Fruit
299
LB

한국산 시인머스켓
Korean Shine Muscat Grape
1999
PK

줄기 토마토
Cluster Tomato
099
LB

청경채
Shanghai Bokchoy
129
LB

연근
Lotus Root
249
LB

한국고추
Korean Pepper
199
LB

그린지아ينت 아이다호감자
Green Giant Idaho Potato
249
BAG

천하미
Chun Ha Mi (Short Grain Rice)
2899
40 LB

프리미엄 참쌀
Premium Sweet Rice
1299
15 LB

오뚜기 연두
Cooked Soybean Paste
1299
1200 G

안성탕면
Ansong Tangmyeon Noodle
499
412.5 G

안초이 김치
Anchoy Kimchi
799
513.40 G

창명면
Changmyong Noodle
799
414.50 G

농심 김치 6컵 (순배지/순김치/신배지)
Farmen 6 Cups (Soon Veggie / Soon Kimchi / Shin Vegan)
799
612.64 OZ

연두 (순/오리지널)
Yondu - Liquid Seasoning (Light / Original)
449
275 ML

사계절 생장
Seasoned Synthes Paste (Dagje Synthes)
399
500 G

연미/사과소
Veggie (Sweet Rice / Apple)
500
900 ML

사계절 생장
Soybean Paste
1399
602.62 G

안동식간 고등어
Salad Mackerel Fillet
1099
2.2 LB

청정바다 통영 굴
Oyster (O.Z.)
399
226 G

바다곰
Frozen Baked Baby Clam Plate
899
2 LB

절반낙지
Channel Coated Small Octopus
699
1 LB

두루두루 만두
Duru Duru Panki (L)
1399
64 OZ

군만두
Chipy Proskers
799
32 OZ

맛있는 매운 왕꾸꾸미 만두
Spicy Small Octopus Dumpling
699
2x380 G

부산어묵
Banan Fish Cake
499
1 KG

개맛살
Hawain Kani Stick (Kani Stick)
499
1.1 LB

원통 바나나소세지
Wonna Sausage
399
8 OZ

밀떡볶이떡
Wheat Noodle Cake
299
2.2 LB

시원 바지락칼국수/얼큰 버섯칼국수
Noodle Soup (Clam / Spicy Mushroom)
699
642 G

냉면
Noodles with Black Bean Sauce (Spicy / Original)
399
640 G

시원바지락
Medium White Egg
349
1.5 OZ

순작 유기농 보리차/순작 유기농 옥수수차
Organic Tea (Barley / Roasted Corn)
499
800 G

오수수차
Roasted Corn
399
30x10 G

바이오페일 요거트 (베리/딸기/파인애플)
Biofeol Yogurt (Plain / Strawberry / Pineapple)
399
25163 ML

비타민 칼슘콩 고칼슘 두유
Vitamin Calcium High Calcium Tofu
999
7 OZ

정원 마구름 (핑크/블로우/그린)
Green/Black/Yellow Green Tofu
499
5.82 OZ

POULTRY & MEAT LOW PRICE AND BEST MEAT PROMISED IN THE 365 DAYS

Weekly Hot Special

양념 LA갈비
Marinated Beef Sliced Short Ribs (LA Style)
1399
LB

Weekly Hot Special

갈비삼겹숙육
Pork Bone In Rib Belly Chunk
599
LB

앵거스프라임 흉두깨살 장조림
Angus Prime Beef Eye Round Jangorim
999
LB

돼지 찜갈비
Pork Spare Ribs Cut
499
LB

냉동 돼지대머목살
Frozen Pork CT Butt Paper-Thin
799
LB

양념 꽃살불고기
Marinated Beef Loin Flap Meat (Bulgoggi)
899
LB

닭사태살
Chicken Boneless Thigh
349
LB

무항생제 목초우 양념스테이크
Grass Fed Beef Tenderloin Steak
999
EA

FRESH SEAFOOD YOU WILL FEEL THE SCENT OF THE SEA IN THE 365 DAYS

Weekly Hot Special

머리없는새우
Shrimp (Head Off, 16-20)
699
LB

Weekly Hot Special

히메고 (달콤한맛)
Himego (Sweet)
1499
LB

절단꽃게
Swimming Crab Cut (11/15)
899
BOX

캘리포니아 오징어
California Squid (Loligo)
1299
BOX

뉴질랜드 반칸 홍합
New Zealand Half Shell Green Mussel
1299
BOX

별어
Butter Fish
399
LB

연어 스테이크
Salmon Steak
899
LB

아구
Monk Fish
299
LB

HOUSEWARE MAKE YOUR LIFE EASIER & STYLISH

일회용 장갑
Deposable Gloves
399
EA

크림백 (롤)
Roll Bag
499
EA

소프트 빗자루
Soft Broom
499
EA

퀵스타 침술 습기 제거제
Activated Charcoal
399
EA

코팅장갑
Red Coating Glove
249
PK

냉장고 탈취제 (녹차/감귤)
Refrigerator Deodorizer (Green Tea / Citrus)
199
300G

바니 슬리퍼 (그레이/핑크/퍼플)
Bunny Slipper (Grey / Pink / Purple)
799
PAIR

스포티 보온병 (블루/핑크)
Sporty Vacuum Bottle (Blue / Pink)
799
EA

초특가 세일
SUPER SPECIAL SALE

토마토 감자
Tomato Potato
449
14.1 OZ

9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장+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력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 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 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속도 가능. 410-961-3012

-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 4)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클로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감관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각: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실버스프링 두플렉스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매입/현장매입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LORTON 헤어제품 수입 홀세일 창고에서 오전: 고객 오더접수 오후: 노던 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 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경력자우대 합니다. Resume :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력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본사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첸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n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자'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드 및 기타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 한국/타주면허 갱신
- ▶ Real ID 신청
- ▶ 차량 구입/등록
-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자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o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품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팀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포드 광동밴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매케닉, 준매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반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가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 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알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나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우. 재택 NO
E-mail :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포츠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킨,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
여 직장인/유부/800
703-350-1986

▶▶아난데일 홈디포 옆 싱글홈 워크
아웃 반지하방 1/화1 /세탁기/부엌/유부
\$1,5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종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애난데일마트옆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주 좋음 워싱턴 실버타운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접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 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별도 출입문, 출퇴근 하시는 직장인 한분 만 원합니다.
화장실, 샤워, 인터넷. 문자요망
703-282-2862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환영. 문자 보내주세요.
571-345-8879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 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703-598-6087

▶▶1.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 지하 워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 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 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
571-236-0834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환영/문자바람
703-678-7833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 지하 전체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 부엌 거실 욕실 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장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장 2½, 1,612sq. ft.,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Rent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장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장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장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장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장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선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 4 화장 3, 1/2 ▶703-768-1240 1. 마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5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췌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펜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환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톤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톤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동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동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컨, 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컨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핫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B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퍼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유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주방장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알짜 세탁소 에이전시
 월매 28K, Net 11K 확실
 특가 21만, 기후쾌적
 안전, 성장지역, 세련된, 좋은 매물
 주인은퇴, S.Riverside CA 지역
 (213)249-1893 샘킴

Hello Town
 K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이메일로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무료)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건설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살삼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흥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삼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루 쟁점으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들과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가을학기 개강 9월 16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지구촌마켓 GLOBAL FOOD

- MANASSAS, VA**
703.369.9977
10320 Festival Lane, Manassas, VA 20109
- WOODBIDGE, VA**
703.897.6100
13813 Foulger Square, Woodbridge, VA 22192
- ALEXANDRIA, VA**
703.933.6033
1476 North Beauregard St, Alexandria, VA 22311
- SILVER SPRING, MD**
301.847.9884
13814 Outlet Dr, Silver Spring, MD 20904
- OXON HILL, MD**
301.485.0651
5470 St Barnabas Rd, Oxon Hill, MD 20745
- BALTIMORE, MD**
410.645.8627
6600-6658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오른시간: 월-일요일 (9am-9pm)
www.iglobalfood.com

Weekly Sale
Sep 20 Fri ~ Sep 26 Thu 2024
본세일은 Woodbridge, Silver spring 매장에만 적용됩니다

New Crop

- 햇사과 Fuji Apple** # X-Lg **99¢** / LB
- 토마토 Tomatoes** # 5X6 Size **99¢** / LB
- 콜리플라워 Cauliflower** #Jumbo Size **\$2.99** / EA
- 할라페뇨고추 Jalapeno Pepper** #Jumbo Size **79¢** / LB
- 단호박 Kabocha Squash** # M Size **79¢** / LB
- 감자다발 Bag Idaho Potatoes** # 5LB **\$2.49** / BAG

SEAFOOD

- 고등어 NORWAY MACKEREL** **\$1.99** / LB
- 블루피쉬 FRESH BLUE FISH** **\$2.99** / LB
- 브론지니 FRESH BRONZINI** **\$6.99** / LB

MEAT

- 화이트 Beef Flap Meat** **\$7.49** / LB
- 설깃살 Beef Bottom Round Flat** **\$6.99** / LB
- 돼지등심 Pork Loin** **\$2.99** / LB
- 돼지목뼈 Pork Neck Bone** **\$1.49** / LB
- 파울 Chicken Heavy Fowl** **\$1.49** / LB
- 닭사태살 Chicken Thigh(Boneless)** **\$2.69** / LB

HARDWARE

- ACE COOK NON STICK SAUCE PAN** **\$11.99** (1.5 QT)
- WHISTLING KETTLE 스텐레스 주전자 24 CM** **\$22.99** (EACH)

WOODBIDGE ONLY 아래 세일상품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정원 화영당면 CHO SWEET POTATO GLASS NOODLE 3.49 / 500 G	아씨 진한육수 간편한알 TABLET BROTH ORIGINAL 6.99 / 3.52OZ	아씨 멸치다시 ANCHOVO SOUP STOCK 4.49 / 500 G	백설 튀김가루 BEKSUL FRYING MIX FOR COOKING 2.99 / 1KG	청정원 유기농 흑설탕 ORGANIC CANE SUGAR DARK 3.99 / 454G	청정원 올리브유 재래김 CJW SEASONED SEAWEED SNACK 3.49 / 40.5G*9	WANG 김밥용 구운김 WANG ROASTED SEAWEED 100SHT 12.99 / 100매	WANG 유기농 돌각미역 WANG DRIED SEAWEED 10.99 / 12.34OZ	남양 프렌치 카페믹스 NAMYANG FRENCH CAFE MIX/1L 1G*100 10.99	국보 로제 라이스 KOKUHO ROSE SUSHI RICE 15.99 / 10 LB
자연나라 울무 PEARL BARLEY 3.49 / 1 LB	샘표 진간장 금F3 SEMPIO SOY SAUCE GOLD F3 5.49 / 1.7L	오투기 사과식초 OTTOGI APPLE VINEGAR 2.99 / 500ML	SHIRAKIKU 스시 소스 SUSHI SAUCE 3.99 / 18 OZ	수라상 청양초 고추장 SRS HOT PEPPER PASTE 4.49 / 1,1LB	해찬들 쌈장 SSAMJANG SEASONED SOYBEAN PASTE 2.29 / 170 G	순창 재래식 생된장 CHUNGJUNGONE SOYBEAN PASTE 5.99 / 1KG	S&B 골든 카레 순한맛 S&B GOLDEN CURRY MILD 3.49 / 7.8OZ	동원 자연산 골뱅이캔 DONGWON CANNED WHELK 6.49 / 400G	아씨 생다진생강 ASSI MINCED GINGER 3.49 / 1 LB
초립동이 쌈다시마 CHD SALTED KELP 1.99 / 14.1OZ	싱그람 우엉과단무지 SEASONED BURDOCK PICKLED RADISH 2.99 / 250G	WANG 가쓰오우동 WANG NOODLE SOUP (UDON) KATSUO FLAVO 3.49 / 427 G	WANG 토네이도감자 TORNADO POTATO 4.99 / 14.1 OZ	대원 종합어묵 FISHCAKE ASSORTED 4.99 / 500 G	SHIRAKIKU 게맛살 SHIRAKIKU KANI KAMABOKO PREMIUM GOLD 3.49 / 500 G	어선 볶음멸치 DRIED ANCHOVY 6.49 / 5 OZ	H2C 코코넛 워터 COCONUT WATER 2.49 / 33.8 OZ	EXCELLENT 플라워 스틱 EXCELLENT PANCIK CANTON FLOUR STICK 3.99 / 16 OZ	OLD TOWN 인스턴트 커피믹스 클래식 OLD TOWN WHITE COFFEE CLASSIC 7.99 / 38G*15

SILVER SPRING ONLY 아래 세일상품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 손으로 만든 녹차 호떡 찹쌀 호떡 WANG SWEET RICE PANCAK 2.49 / 3PCS	아르고 콘스타치 ARGO CORNSTARCH 1.99 / 16OZ	한상 인절미 (ANY FLAVOR) HANSANG INJEOLMI RICE CAKE 8.99 / 700G	청정원 건강한 올리브유김-파래김 20G X 4PK CJW OLIVE OIL GREEN LAVER (LIMIT 3PK) 3.99	남양 프렌치 카페 아라비카 커피믹스 NAMYANG ARABICA GOLD LABEL COFFEE MIX 11.99 / 100TB	INOTEA 버블티 (ANY FLAVOR) INOTEA BUBBLE TEA 2/3 / 490ML	샘표 진간장 진 S SEMPIO SOY SAUCE JIN S 3.99 / 1.7LT	MORE 잘 담근 김치 포기김치 (한국산) MORE WHOLE CABBAGE KIMCHI 1.99 / 7.06LB	이루자 오순이 (버터구이 오징어) ERUZA GRILLED SEASONED SQUID (PEANUT BUTTER) 4.99 / 80G	오투기 진라면 멀티팩 MILD SPICY OTG JIN RAMEN MULTI 3.99 / 4PK